

동트는 강원

Rising Gangwon

154. 여름 Summer Korean + English



표지 / 30 / 박상운



ISSN 2733-8223



여행을 떠나려는 자
참고하라!

동트는 강원
유튜브 탄생!!



동트는 강원 기고문 작가를 찾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강원의 풍경이 됩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품에서 느꼈던 다정한 온기,
혼자만 알고 있기 아까운 강원의 눈부신 풍경을 기록해 본 적 있나요?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좋아요.
지금 여러분의 특별한 강원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동트는 강원 155호 기고문 종류

- 강원 맛 : 도내 18개 시군에서 맛본 잊을 수 없는 미식 여행기(지역 대표 음식명0, 상호명 X)
- 강원 기행 : 발길 닿는 곳마다 펼쳐진 강원의 감동 기행문(나만의 숨은 명소 이야기)

기고 참여 안내

- 모집 기한 : 2026년 6월 5일(금) ~ 2026년 7월 19일(일)
- 투고 요령 : 이메일 접수(smilejeon@korea.kr)
파일 형식 : 한글(.hwp) 또는 워드(.docx)
메일/파일 제목 : [기고 신청] 제목
- (예 : [기고 신청] '속초의 시원한 물회국수 한 그릇')
저자명, 저자소속, 연락처(휴대전화번호) 필수 기재
- 분량 : 200자 원고지 기준 8~9매, (공백 포함 1600자~1800자)
A4 용지 기준 1장 반 이내(쪽 여백 기본), 글자 포인트 11, 줄간격 160%
- 선정된 기고문은 소정의 답례품을 드립니다.
- 문의 : 강원특별자치도 대변인실 033-249-2147

강원에서의 특별한 시간,
그 생생한 감동을 나눠주세요.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강원에서의 특별한 시간, 그 생생한 감동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진솔한 글을 기다립니다.



동트는 강원

Rising Gangwon



동트는 강원 웹진
구독 신청

통권 154호

발행일 : 2026년 6월 1일

발행인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편집인 : 대변인 현재호

에디터 : 조은노 • 전영민

아트 디렉터 : 박상운

발행처 : 강원특별자치도

인쇄처 : 금강P&B

강원특별자치도
GANGWON STATE

•154 Korean+English Contents

Cover Story _

- 04p 여름이다! 더위가 싹 사라질 동굴로 가자
- 12p 창간 30주년, 그날과 오늘 톺아보기
- 16p 포토 갤러리 : 설악산 & 강릉 안반데기
- 17p 그래, 여기서 즐기자! 여행가는 달, GO, GO, GO!

Nature & Travel _

- 26p 108년을 밝혀온 강원도의 첫 번째 빛, 주문진등대
- 32p 영월 산골마을과 솔고개 소나무
- 36p 월정사에서 선보이는 '산사의 미식'
- 46p 톺아보는 근대 건축 시리즈 1. 용소막성당
- 56p 전통시장 : 영월 덕포5일장

Current Gangwon 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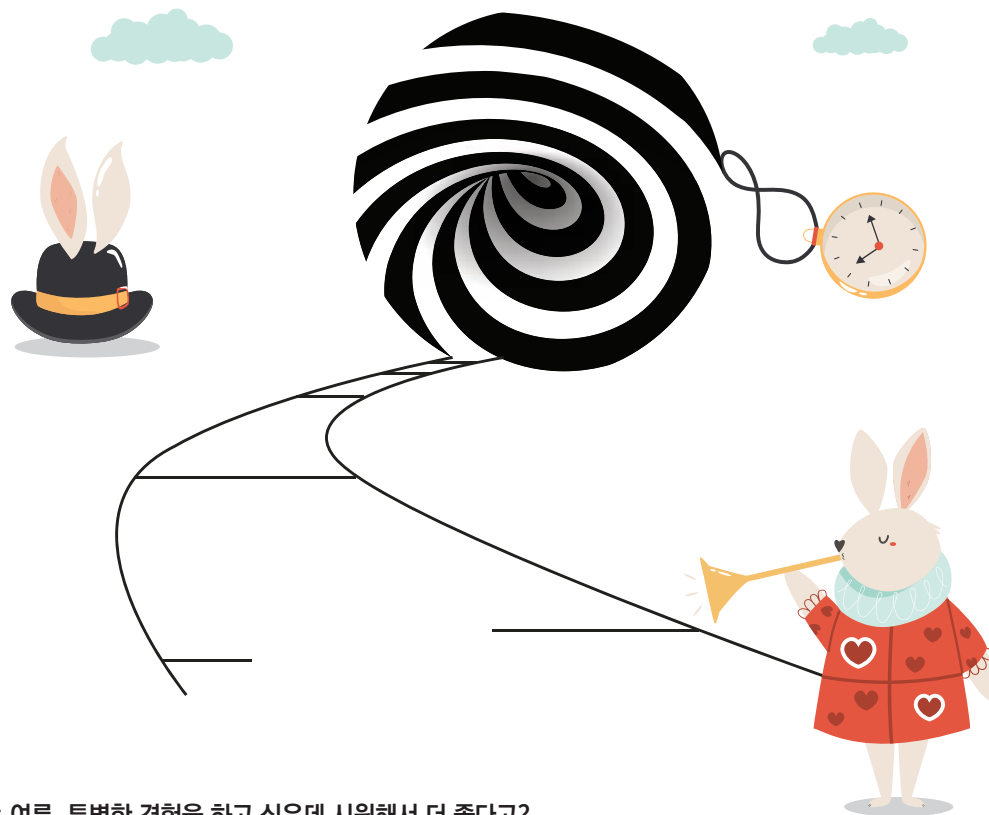
- 64p 미리 가 보는 강릉 ITS 세계총회 : 도시정보센터를 가다
- 72p 2026 평창대관령음악제
- 74p Breath of Gangwon展
- 78p 청년이 지키는 마을 : 인제 신월리 달뜨는 마을
- 86p 특별한 강원인 : 김상겸 스노보드 은메달리스트
- 92p 창간 30주년 기념 독자의 글
- 95p 독자 안내



오싹한 시원함, 국내 유일의 '천연 동굴'

A Chilling Escape: South Korea's Unique Natural Caves

일러스트 구성 : 박상운 / 동굴속 이상한 나라



다가오는 여름, 특별한 경험을 하고 싶는데 시원해서 더 좋다고?

황홀한 지하로의 세계로 가는 거라고?

어디일까? 바로, 천연 동굴이다.

아이들과 1시간 남짓 즐길 수 있는 테마형부터 국가 지정 문화유산으로 오래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던 동굴에 이르기까지, 지질의 형성과 생물의 서식까지 수만 년의 시간을 품고 있는 공간. 지질 연구자, 관광을 다니는 단순 여행자, 누구에게나 과학 교실이 되는 곳이 바로 동굴이다. 올해 여름은 이곳에서 잠시 더위를 식혀보자!

Looking for a special experience this summer that's made even better by the cool air?

How about a journey into an enchanting underground world? The answer is a natural cave.

From themed caves perfect for a 1-hour adventure with children to caves designated as national cultural heritage sites and natural monuments, Gangwon's caves preserve tens of thousands of years of history. This summer, let's escape the heat and take a break here!

국내에서 유일하게 도심에 있는, 동해 천곡황금박쥐동굴

세계적 멸종 위기종인 황금박쥐 상시 서식지로 인정되자 천곡동굴에서 황금박쥐동굴로 이름을 바꾸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석회암 동굴인데 삼척의 환선굴과 함께 손꼽히는 석회동굴이다. 또 한국 최대의 동굴 하천이 흐른다고 한다. 아파트 공사 중에 우연히 발견되어 1996년 대중에게 공개됐다. 1,510m 길이지만 개방하는 관람 구간은 810m.

동해시 북평여자고등학교와 마주해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여름 공포 체험 코스란다.

1시간 정도면 내부를 모두 둘러볼 수 있어 큰 부담도 없다. 천장에 매달린 대형 종유석, 바닥에서 솟은 석순, 종유석과 석순이 기둥으로 연결된 석주를 볼 수 있다. 주변으로 동굴 형성 과정을 이해하기 쉽도록 785m의 돌리네(석회암이 물에 녹으면서 깔때기 모양으로 파인 웅덩이) 탐방로도 만들고, 100여 종의 야생화가 피는 야생화 체험 공원으로 조성해 인근 지역 주민의 휴식 공간으로 인기다. 5억여 년이라는 자연의 신비를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지하 궁전이라는 평을 얻었다.

📍 동해시 동굴로 50. 033-539-3630. www.dhsisul.org

Cheongok Golden Bat Cave, Donghae

As a year-round habitat for the globally endangered golden bat, this is the only limestone cave in South Korea located in the heart of a city. It is also home to the nation's largest underground river. Accidentally discovered during apartment construction, the cave opened to the public in 1996. While its total length is 1,510 m, the accessible viewing section is 810 m, allowing for a relaxed tour that takes about an hour. Nearby, a 785 m trail provides insight into the cave's formation process, complemented by a wildflower experience park where over 100 species of wildflowers bloom.







국내 유일 탐험형 동굴의 특별함이 있는, 평창의 ‘백룡동굴’

인터넷을 타고 알음알음 찾아오는 이들이 늘어나는 곳.

아주 특별하고, 이색적인 자연 체험을 원하는 이들이 찾아오는 곳.

평창군 미탄면, 동강이 흐르는 백운산에 자리한 백룡동굴이다.

1976년 발견되어 2010년에 처음 개방하여 석회암 동굴의 원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이곳은 일반인들에게도 탐험이라 할 법한 동굴 탐사 시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제법 유명하다.

국내 여느 동굴들과는 달리 조명 등 인공 시설을 최소화하고 한정된 인원만을 받는 동굴 체험 방식으로 운영돼 탐사복, 헤드램프, 장화 등 탐험 수준의 준비는 필수다. 전문 해설사의 안내에 따라야만 동굴 내부를 탐방할 수 있고, 어두운 지하 공간에서 조명 없이 마주하는 자연물의 생생함은 특별한 경험이었다는 언급이 많다.

특히 동굴 내에는 종유석, 샷갓 석순, 석주, 동굴 방패 등 독특한 생성물과 더불어 아직도 성장하는 생성물로 학술적 가치를 보유한 동굴로 평가받고 있다는 설명을 듣고 나면 목소리조차 작아진다는 소감이 대부분이다. 연중 섭씨 13도 안팎의 일정한 온도와 90%에 가까운 습도를 유지해 다양한 생물의 서식처로도 주목받고 있는 이 동굴은 미지의 세계를 궁금해하는 이들에게 딱 맞춘다.

❗ 백룡동굴 생태학습장. 평창군 미탄면 문희길 63. 033-334-7200~7201. <http://pc.go.kr/cave>

Baengnyong Cave, Pyeongchang

Located in Baegunsan Mountain, through which the Donggang River flows, in Mitán Township, Pyeongchang County, Baengnyong Cave was discovered in 1976 and first opened to the public in 2010, preserving the original form of a limestone cave. It is quite famous for offering cave exploration experiences that could be considered expeditions for the general public. Visitors must be accompanied by a professional guide to explore the cave's interior. As you must view the cave formations without artificial light in the dark underground space, expedition-level gear such as exploration suits, headlamps, and boots is essential. The cave is highly valued for its unique and still-growing formations, holding significant academic importance.





국내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태백 용연동굴

백두대간의 중추인 금대봉 하부 능선 해발 920m에 있는 태백 용연동굴.

그야말로 산꼭대기에 있다. 용연동굴 입구까지 동력선 2기와 객차 3기로 구성된 '용연열차'를 타고 올라가는 데 주차장에서 용연 열차를 타고 동굴 입구까지 1.1km 가량을 오르는 동안 주변에 펼쳐진 광경이 절경이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좋다. 금대봉을 올랐든, 태백산을 올랐든, 이 열차를 타고 오고 가는 동안 눈에 들어오는 풍광이 또 다른 자연의 깊이를 느끼게 해 준다.

이 동굴은 약 1억 5천~3억만 년 전에 생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굴의 길이는 약 843m로 비교적 짧지만 '오 형제 바위', '독불장군', '박쥐의 고성', '용의 침실', '지옥문', '조스의 무덤', '용의 목젯' 등 톡톡 튀는 이름이 붙어 있어 아이들과 함께 보기에 쓸쓸한 재미가 있다. 박쥐와 긴다리장님줄면지벌레 등 진귀한 동굴 생물 38종이 서식하고 있다.

? 태백시 태백로 283-29. 033-553-8584

Yongyeon Cave, Taebaek

Sitting at an altitude of 920 m on the lower ridge of Geumdaebong Peak, the backbone of the Baekdudaegan Mountain Range, the entrance to Yongyeon Cave is reached by a 1.1 km ride on the Yongyeon Train. Believed to have formed between 150 and 300 million years ago, the cave is relatively short at 843 m. However, it is a delight for families with children, thanks to creatively named formations such as Five Brothers Rock, Dragons Bedroom, Hells Gate, and Dragons Uvula. The cave is also home to 38 species of rare cave-dwelling creatures.



글 : 조은노 사진 : 연합뉴스, 태백시청, 동해시청, 평창군청



창간 30주년, 1996년의 그날과 오늘 돌아보기

30 Years in Print: Tracing the Journey from 1996 to Today

1996년 창간한 동트는 강원이 올해로 30주년을 맞았습니다.

강원 브랜드를 국내외로 알리기 위해 달려온 지난 30년, 잠시 펜을 내려놓고 그 시간의 궤적을 되짚어 봅니다.

기념비 같은 순간부터, 오늘에 이르기 까지 켜켜이 쌓인 강원의 기록을 그간의 표지와

아카이브 사진 자료들로 세심하게 추려내 보았습니다.

표지 한 장 한 장이 보여주는 격동적인 역사와 도민의 생생한 목소리, 동트는 강원이 기록해 온 잊지 못할

강원의 찰나를 잠시 마주해보시기 바랍니다.

● 동트는 강원 창간 행사 / 1996. Launch Celebration of Rising Gangwon



● 창간호 표지 / 1996



■ 일본 돗토리현과 교류 / 1996
Partnership with Tottori Prefecture, Japan



■ 공무원 컴퓨터 교육 / 1996
Computer training for public officials

● 14호 표지 / 1998



■ 강원전문대 (현 강원도립대) 개교 / 1998
Opening of Gangwon State College



■ 원주테크노파크 부지 선정 / 1998
Site Preparation works for Wonju Techno Park

● 21호 표지 / 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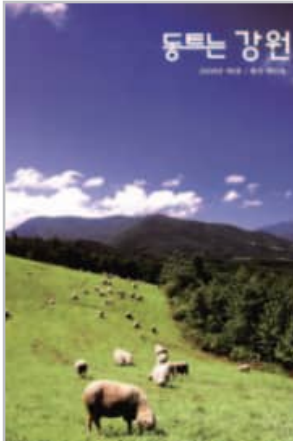


■ 국제관광엑스포 / 1999
Hosting of International Tourism Expo



■ 강원카지노리조트 기공식 / 1999
Grandbreaking ceremony for Gangwon Casino Resort

● 57호 표지 / 2009



■ 강원FC 창단 / 2008
Founding of Gangwon FC



■ 서울 - 춘천 고속도로 개통 / 2009
Opening of the Seoul-Cuncheon Expressway

● 105호 표지 / 2018



■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Hosting of the 2018 PyeongChang Winter Olympics



● 137호 표지 / 2023



■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 2023 Inauguration of Gangwon State









2025-2026

VISIT GANGWON

강원 방문의 해

2026년은 세계가 강원을 만나는 해
올해도 강원으로 GO, GO, GO!!
클릭! visitgw2526.kr

6월부터 8월까지 추천 여행지는?

2026 혜택 받GO! 강원 여행, 최대 4만 원 캐시백, 9월까지 진행!

9월까지 숙박비 6만 원 이상 인증하면 3만 원, 관광 소비 5만 원 이상 인증 하면 1만 원,
1인 최대 4만 원까지 모바일 강원상품권으로 돌려받는다.

강원혜택이지(<https://easy.gwd.go.kr/dg>)에 접속해 회원가입 하면 발행되는

강원생활도민증으로 영수증 인증메뉴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내 숙박 또는
관광 소비 영수증 사진을 인증 완료하면 바로 지급.

6월. 전통의 흥겨움과 초록빛 필드에서의 휴식

June. The Joy of Tradition and Relaxation on Green Fields

강릉 단오제 천년을 이어오는 축제로 매년 50만 명 이상이 다녀가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올해는 6월 15일부터 6월 22일까지 총 13개 분야, 71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굿판에서 한을 풀고, 창포물로 액을 풀고, 난장에서 이야기를 풀고 마음을 풀고, 서로가 함께 풀리는 순간을 경험한다는 '풀리니, 단오다'를 주제로 잡았다.

강릉시 단오장길 1 일원. 033-641-1593. www.danojefestival.or.kr



Gangneung Danoje Festival:

This millennium-old celebration draws over 500,000 visitors annually and is recognized as a UNESC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From June 15 to June 22, the festival will host 71 programs across 13 categories. Under the theme "Unbound: This is Dano," focusing on the experience of becoming unbound: unbinding sorrows at shamanic rituals, unbinding misfortune with iris water, and unbinding stories and hearts in the bustling open-air marketplace, until everyone is finally unbound together.



화천 산천어 파크골프장 북한강변을 따라 탁 트인 조망을 옆에 끼고 주변 수목이 조화를 이뤄 지난해 최고의 인기를 누렸다. 국내 최초의 선상 휴게실과 홀마다 설치된 그늘막을 갖춘 제1구장은 야간 조명등 설치로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라운딩이 가능하다. 제2구장은 전국 최장 길이의 1,500m 코스 길과 세계 최대 길이의 300m 롱홀을 보유 중인 전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파크골프장으로 꼽힌다.

☎ **회천군 허님면 준회로 3061-17, 033-441-0797, hspg.ihc.go.kr**



Hwacheon Sancheoneo Park Golf Course:

This premier destination offers expansive views along the Bukhangang River. The first course, equipped with South Korea's first floating lounge and sunshades at every hole, allows for rounds from 6 AM to 9 PM thanks to its night lighting. The second course features the nation's longest 1,500 m course and the world's longest hole at 300 m, cementing its reputation as the most popular park golf destination in the country.

7월. 시원한 고원 산책과 짜릿한 푸른 바다

July. Cool Highland Strolls and Thrilling Blue Seas

정선 민둥산 돌리네 미니 백록담, 한국의 스위스, 배낭여행의 성지. 최근 몇 년 동안 민둥산이 새로 얻어낸 이름이다. 가을 역사로 주목받았던 이곳이 4계절 관광객이 몰려들면서 생긴 일. 이색적인 카르스트 지형이 만들어낸 움푹 파여 자연의 신비함이 만들어낸 지형인 돌리네(145호, 142호 소개)가 초록으로 물들면, 인증사진을 남기려는 이들이 더위도 아랑곳없이 이곳을 오른다.

📍 정선군 남면 민둥산로 12. 정선군 콜센터 1544-9053. www.jeongseon.go.kr/tour



Jeongseon Mindungsan Mountain:

A mini-Baengnokdam, the Switzerland of Korea, and a mecca for backpackers—these are the new nicknames for Jeongseon Mindungsan Mountain. While long celebrated for its autumn silver grass, the area now draws visitors year-round. When the doline—a unique sinkhole formed by karst topography—is draped in vibrant green, hikers brave the heat to ascend the summit and capture the mystical, natural wonder in their photos.



동해 망상 해변 다시 예뻐졌다. 동해시가 걱정하고 해변을 정비했다. 묵호항에서 북쪽으로 3km쯤 떨어져 있는 망상해변은 얇은 수심이 강점이다.

수령 20~30년 이상의 울창한 송림과 4km에 달하는 넓은 백사장과 청정 해수, 해수욕장 바로 앞에 국내 최초의 자동차 전용 오토캠핑장, 해변에 위치한 한옥촌은 여름 휴가를 즐기기에 안성맞춤.

📍 동해시 동해대로 6270-10. 033-530-2800. www.gangwon.to/gwtour



Donghae Mangsang Beach:

Located about 3 km north of Mukho Port, Mangsang Beach is known for its shallow waters. With a dense pine forest over 20–30 years old, a vast 4 km white sand beach, and pristine seawater, it is perfectly suited for summer vacations. The beach also features South Korea's first auto-campsite right in front of the shore and a traditional Hanok village located on the beach.



동해 무릉별유천지 하늘 아래 최고 경치가 좋은 곳으로 속세와 떨어져 있는 유토피아라는 뜻을 품은 이곳은 석회석 채광지를 관광 체험 시설로 전환한 곳. 스카이글라이더, 알파인코스터, 오프로드 루지, 롤러코스터형 집라인과 2개의 에메랄드빛 호수를 둘러싼 라벤더 정원은 이미 유명세를 타고 있다.

☎ 동해시 이기로 97. 033-533-0101. www.dh.go.kr/mubu



Donghae Mureung Byeolyucheonji:

Embodying the meaning of a utopia detached from the mundane world with the finest scenery under the sky, Mureung Byeolyucheonji is a former limestone quarry transformed into a tourism and experience facility. It offers thrilling attractions such as the Sky Glider, Alpine Coaster, Off-road Luge, and roller-coaster-style zip lines. The site is already famous for its lavender gardens surrounding two emerald-colored lakes.

8월. 청정 계곡과 강줄기 따라 떠나는 여름 피서

August. Summer Escapes Along Pristine Valleys and Riverways

양구 두타연 민통선 지역으로 양구안보관광지 통합 예약 사이트에서 사전 출입 신청해야 갈 수 있는 곳.

국가지질공원의 하나로 숲속을 따라 걷다 보면 7월의 태양도 그다지 뜨겁게 느껴지지 않을지 모른다.

사태천이 굽이쳐 흘러 형성된 폭포를 향해 쪽 걷기 좋다. 두타연 주차장에서 출발해 생태탐방로를 거쳐 돌아오는

일반 코스, DMZ 평화의 길 26코스, DMZ 평화의 길 테마 노선 코스가 있다.

📍 양구군 병신면 두타연로 297. 033-480-7266. stour.ticketplay.zone/portal/index



Yanggu Dutayeon:

Located within the Civilian Control Line area, Dutayeon requires advance access applications through the Yanggu Security Tourist Resort Integrated Reservation website. As part of a National Geopark, it offers a scenic walk toward waterfalls formed by the winding Satacheon Stream. Available routes include a general course starting from the Dutayeon parking lot via the ecological trail, DMZ Peace Trail Course 26, and the DMZ Peace Trail Thematic Course.

양구 광치계곡

양구 9경 중 하나로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대암산 줄기로 이어지는 계곡. 표고 800m의 광치령은 다양한 폭포와 계곡, 울창한 원시림이 압권이다. 고속도로를 피해 조용한 국도를 달리고 싶은 드라이버들에게는 양구와 인제, 원통을 연결하는 광치터널을 지나 동해안으로 가는 좋은 선택지이기도 하다. 사계절이 수려한 광치계곡에 자리잡은 자연휴양림에 하루 쯤 숙박하는 여유를 부려도 좋겠다.

? 양구군 남면 기오직리. 033-480-7204. www.ygtour.kr



Yanggu Gwangchi Valley:

As one of Yanggu's Nine Scenic Spots, Gwangchi Valley extends from the Daeamsan Mountain range at the geographical center of Korea in Yanggu County. Gwangchiryeong Pass, at an altitude of 800 m, is renowned for its breathtaking scenery, featuring diverse waterfalls, streams, and dense primeval forests.

태백 한강 · 낙동강 발원지 축제

매년 7월 마지막 주 금요일부터 주말까지 열리는, 이 물을 테마로 하는 축제는 태백 도심 일원에서 물과 함께 걷는 퍼포먼스로 개막을 알린다. 해마다 진행하는 선선워터나잇은 매년 관광객들의 참여도가 높은 프로그램으로 물과 빛이 어우러진 무대에서 한바탕 춤사위에 함께 참여하는 한여름 밤의 축제다. 1일 약 5,000톤의 물이 솟아나 영남 평야까지 유유히 흘러서 불리게 된, 낙동강의 발원지 황지연못 일원에서 야시장, 플리마켓을 진행하며, 매일 밤 화려한 불꽃 쇼도 열린다.

❓ 태백시 황지연못길 12. 태백시문화재단 033-553-6900. <http://tbcf.or.kr>



Taebaek Hangang River-Nakdonggang River Source Festival:

Friday of July through the weekend, this water-themed festival kicks off with a water-themed walking performance in downtown Taebaek. The "Seonseon (Cool) Water Night" event, held every year, enjoys high participation from tourists. The area around Hwangji Pond, the source of the Nakdonggang River, hosts a night market and flea market, with spectacular fireworks displays lighting up the sky every night during the festival.

❓ 강원 방문의 해 누리집. visitgw2526.kr. 강원관광재단. www.gwto.or.kr. 033-269-8900
글 : 조은노 사진 : 연합뉴스, 각 해당 시군, 이혜진 본지 객원 작가

108년을 밝혀온 강원의 첫 번째 빛, 주문진등대

Jumunjin Lighthouse, Gangwon's First Light, Shining for 108 Years



강원의 아침을 여는 붉은 태양 아래, 묵묵히 한 세기가 넘는 세월을 지켜온 하얀 파수꾼이 있습니다.

1918년 3월 20일, 강원도 해안에 처음으로 불을 밝힌 '주문진등대'.

올해로 108세라는 긴 연륜을 몸에 새기며 강원의 희로애락을 모두 지켜본 역사의 산증인과 마주해봅니다.



짹조름한 바다 내음을 따라 주문진항에서 소돌항 방향으로 7분 남짓 여유롭게 걷다 보면, 푸른 동해와 하늘을 배경으로 그림처럼 서 있는 새하얀 등대가 등장합니다. 웅장하고 화려하기 보다는 아기자기하고 포근한 자태로, 그 고유한 정취 덕분에 주문진을 찾는 여행객 세 명 중 한 명은 발걸음을 멈추고 쉬어간다는 매력적인 등대입니다.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 이면에는 우리 근현대사의 짙은 상흔이 자리합니다. 일제강점기에 축조된 벽돌조 구조의 건축물은 국내 등대 건축사에서 매우 뛰어난 가치를 인정받고 있지만, 출입구 상부에 뚜렷하게 남은 일제의 벚꽃 문양과, 하얀 외벽 곳곳에 깊게 팬 한국전쟁 당시의 총탄 자국은 시대의 아픔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On March 20, 1918, "Jumunjin Lighthouse" first cast its light upon the coast of Gangwon State. Standing before this living witness to history, you can feel the weight of its 108-year legacy, a beacon that has witnessed the changing tides of Gangwon. Guided by the salty sea breeze, take a leisurely seven-minute stroll from Jumunjin Port toward Sodol Port, and you'll come upon a snow-white lighthouse standing like a painting against the backdrop of the blue sea and sky. Its charming and cozy appearance draws in visitors; thanks to its unique atmosphere, one in three travelers to Jumunjin is sure to stop and rest here.



과거 주문진항이 부산과 북강원도 원산을 잇는 항로의 중간 기항지였던 시절. 주문진등대는 오징어, 명태, 무연탄, 규사 등 수많은 어획물과 자원이 쉴 새 없이 오가는 눈부신 호황의 밤바다를 밝게 비춰주며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주었습니다. 오랜 세월 변함없이 강원 바다를 비춰온 주문진등대. 그 곁에 서서,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을 바라보며 본지 '동트는 강원'의 창간 의미를 자문(自問)해봅니다. 공교롭게도 이 미더운 등대와 생일을 같이 하는 '동트는 강원(1996. 3. 20. 창간)' 역시, 앞으로의 30년, 더 나아가 10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강원자치도를 찾는 특별한 이들의 발길을 환하게 비춰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캄캄한 밤엔 15초마다 불빛을 반짝이고, 안개 낀 날엔 고동 소리로 뱃길을 알려주는 주문진등대처럼. '동트는 강원'이 강원을 온전히 전하는 통로이자, 낯선 여정 속에서 가장 먼저 찾게 되는 든든한 길잡이로 오래도록 남기를 바라봅니다.

Behind this picture-perfect scenery lies a deep scar from Korea's modern history. Built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is brick structure is recognized as a masterpiece of Korean lighthouse architecture. However, the distinct cherry blossom motif left by the Japanese colonialists above the entrance, alone with the deep bullet marks from the Korean War scattered across the white exterior walls vividly reveal the pain of that era.

In the past, when Jumunjin Port served as a midway stop on the shipping route connecting Busan and Wonsan (in present-day North Korea), Jumunjin Lighthouse served as a reliable guide, brightly illuminating the bustling night sea where abundant catches of squid and pollock, alongside cargo like bituminous coal and silica sand, constantly passed through.



글 : 전영민 사진 : 박성운, 전영민 강원특별자치도 대변인실









영월 산솔마을과 솔고개 소나무

Sansol Village in Yeongwol and Pine Tree on Solgogae Pass

지금 여기는 국도 31호선. 굽이친 옥동천 곡류를 따라 태백에서 영월로 넘어가는 길.

어느덧 차창 밖 풍경은 온통 짙푸른 소나무 산들로 가득하다. 마을 전체가 거대한 솔숲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곳, 짙은 솔향이 가득한 녹전리 산솔힐링마을에 닿았다.

전국 최대 조림지 중 하나로 소나무와 편백, 낙엽송이 하늘을 가릴 듯 빼곡하게 자라는 마을에는 애뜻한 전설이 하나 흐른다. 억울하게 생을 마감한 **어린 단종의 혼이 마을 고개를 넘다가 쉬어갔는데 이때 마을의 노송들이 고개를 숙여 배웅했다는 이야기다.** 그 푸르른 충절과 위로를 기르듯, 녹음이 짙어지는 매년 8월이면 마을은 '산솔나무소나무축제'의 열기로 들썩인다. 소나무 기원제를 필두로 숲속에 울려 퍼지는 산촌 클래식 공연과 정겨운 농산물 장터가 어우러져 한여름의 숲은 더욱 생기가 넘쳐난다.

While driving on National Highway 31 from Taebaek to Yeongwol along the winding stream of Okdongcheon Stream, enjoy majestic views of mountains heavily forested with pine trees. Welcome to Sansol Healing Village in Nokjeon township, a local transportation hub and home to Yeongwol's major attraction—scenic, aromatic pine trees.

A village legend says the spirit of King Danjong, the 6th King of Joseon Dynasty who was unjustly killed at a young age, rested at the village pass, and old pine trees of the village saw him off at that time. Every October, the whole village is filled with excitement for the upcoming Sansolnamu Pine Tree Festival, celebrating its 15th anniversary this year. Lasting memories of high summer are created thanks to the variety of concerts and events, such as Pine Tree Prayer Ritual, Mountain Village Classic Concert, Villager Singing Competition, and Clean Food Farmer's Mark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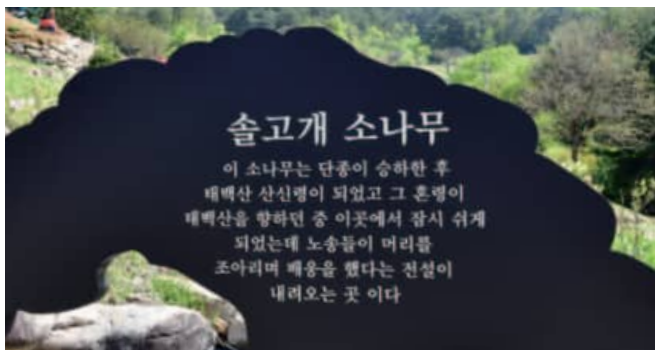
Take National Highway 31 again and go up the winding uphill path on the left. You will be greeted by a large stone sign with the word Solgogae inscribed on it. Above the inscription stands a lone pine tree at the peak of the hill. That is the Wish Tree, a magical pine tree.



구불구불 고갯길을 넘을 무렵, ‘솔고개’라는 커다란 표지석 뒤로 시선을 압도하는 독야청청 소나무 한 그루와 마주친다. 단풍산 초입 자락에 300여 년 전 뿌리를 내려 혈혈단신 자리를 지켜온 나무는 일명 **마법의 소나무**로 불리는 ‘**소원나무**’다. 영월군이 지정한 보호수목으로, **그 수려한 자태 덕에 오래전 한 제약회사의 상품 로고로 쓰여 대중에게 ‘솔표 소나무’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속리산 정2품 소나무, 운문산 처진 소나무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전국 3대 명품 소나무**의 웅장하고도 신비한 위용에 발길을 떼기가 쉽지 않다.



마음속 깊은 곳, 간절히 품어온 바람이 있다면 솔고개 소나무 앞에 잠시 걸음을 멈춰보자. **옛날 옛적 마을엔 단 한 가지 소원을 꼭 이뤄주는 ‘소나무 할매’가 있었는데, 할매의 신령한 기운이 바로 이 노송에 깃들었다고 한다.** 밀려야 본전. 영월의 깊은 숲길에서 마주한 이 묵묵한 나무에게 소원 하나쯤 털어놓아도 좋은 추억이 될 듯하다.



This pine tree took root at the foot of Danpungsan Mountain more than 300 years ago and has been impressively holding the fort alone for all these years. As a protected tree designated by Yeongwol County, the pine tree has been featured in the logo and trademark of Solpyo, a Korean pharmaceutical company, for a long time. It is considered one of the top three remarkable pine trees, along with the Jeongipum Pine Tree in Songnisan Mountain and Weeping Pine Tree in Unmunsan Mountain.

Legend says that the Wish Tree on Solgogae Pass is home to the divine spirit of a pine tree grandmother who reportedly granted one wish to the village. If you make a sincere wish to the Wish Tree, it may be granted.



당신은 무엇을 먹고, 사십니까?
선재 스님과 산사에서 특별한 미식
Is the food you are eating right now truly medicine for you?

프롤로그

마음의 달이 아름다운 절, 월정사 공양간에 스님 한 분이 들어서자 주변 공기가 달라졌다.
속세 나이로 일흔한 살. 갓 고희(古稀)에 접어든 눈매는 평온하고,
자그마한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맑은 기운이 선연했다.
그때 알았다. 음식은 사람의 기운까지 바꾼다는 것을.
‘사찰음식 제1호 명장’이자 넷플릭스 요리 대결 프로그램 ‘흑백요리사 2’에서
화제를 남긴 선재 스님의 음식 이야기는 언제나처럼 화두를 던졌다.
무엇을 먹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먹는 음식이, 정말 당신을 위한 약인가?

Prologue

Master Seonjae, the first designated Master of Temple Cuisine who captured the public's eye on Netflix's culinary competition show Culinary Class Wars 2, presented a special dining experience in harmony with nature at Woljeongsa Temple in Pyeongchang County, Gangwon State.
The monk, who has just turned 70, radiated a clear and vibrant energy, silently proving the fact that "food changes a person's energy."



제철 나물로 차려낸 ‘산사의 밥상’

‘청정한 땅이 주는 풍성한 음식 재료를 품은’ 강원도의 자연 예찬으로 시작한, 철학을 담은 사찰의 음식은 역시나 담백한 상차림을 절제한 조리로 완성했다. 봄나물 김밥, 봄나물 장떡, 평창 메밀묵 구이. 재료인 쑥, 머위, 곰취, 세발나물, 메밀묵은 모두 평창에서 나는 것들이다. 봄철 최고의 식자재로 쑥과 머위를 곱았다.

“봄은 자연이 활기를 되찾는 계절인 동시에 사람의 면역력이 약해지는 시기예요.

봄이 되면 꼭 세 번은 먹어줘야 하는 나물이 쑥과 머위예요. 쑥은 따뜻한 성질을,

머위는 찬 성질을 가졌고 쓴맛이 나지만 겨울 동안 쌓인 노독을 빼 주는 역할을 해요.”

“쑥과 머위는 맛이 쓰고 강해서 그냥 먹는 게 쉽지 않아 쌀로 중화하기 위해 떡을 만들어 먹는다”라며 시연회인 이유로 이날은 김밥과 우리 밀로 반죽한 장떡을 부쳐냈다. 메밀묵은 들기름을 번철에 두르고 노릇하게 구워 찬 성질을 가진 메밀에 따뜻한 기운을 가진 들기름을 입혔다. 조리는 단순했고, 동작은 간결했지만, 정성이 가득했다. 재료 각각의 특성을 살려 서로 조화를 이루게 한다는 이야기는 파스했다. 조리법은 단순하지만, 중심에는 ‘제철’과 ‘몸’이 있었다.

‘Seasonal’ as Permitted by Nature, Becomes ‘Medicine’ for the Body

The temple meal served that day seemed to bring the nature of Gangwon State directly to the table. Namul (seasoned vegetable) gimhap, jangtteok (savory pancake with soybean paste), and grilled buckwheat jelly—all featuring Pyeongchang’s finest spring ingredients like mugwort, butterbur, and gomchwi (*Ligularia fischeri*)—were prepared with restrained techniques rather than flashy artistry.

Master Seonjae stated, "Seasonal refers to the time when we can eat according to nature's permission," and revealed that her first question when cooking is whether the food will serve as medicine.

She explained that seasonal ingredients truly become life-saving medicine only when consumed according to one’s individual constitution.”







요리는 모든 생명과 소통하는 일

“제철이란 많이 나는 때가 아니라, 자연이 허락한 방식으로 먹을 수 있는 시기”라며, 요리할 때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은 하나라고 했다.

이 음식은 약이 되는가?

“요리하는 사람은 자연과 인간을 음식으로 연결하는 통역사와 같습니다. 재료의 성질과 먹는 사람의 몸 상태를 읽어 ‘약’을 짓는 역할을 한다는 뜻이에요. 체질에 따라 내 몸에 맞게 먹어야 비로소 생명을 살리는 약이 됩니다.”

음성에 실린 진심이 전해졌을까. 참가자들 저마다의 모습은 조심스럽고 손끝에 정성이 담긴 듯 보였다. 향긋한 나물 냄새와 고소한 기름 냄새가 번지고 마침내 화사한 꽃밭 같은 봄나물 밥상이 곳곳에 차려졌다.

"Delicious Practice" for Modern People Exhausted by Stimulation

Temple cuisine, which was designated as a national cultural heritage in May 2025 in recognition of its value, offers a profound resonance to modern people exhausted by salty and spicy stimulation. The monk described the entire process of preparing, cooking, and eating simple food without additives as more than just a meal; it is a form of "spiritual practice" and a complete "rest" for both body and mind.



사찰음식이 인기를 얻는 이유

사찰음식은 지난 2025년 5월 국가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조계종은 체계적인 학술 연구를 통해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달고, 짜고, 매운 자극적인 음식에 피로를 느끼는 이들에게 재료 본연의 맛을 알게 하는 사찰음식은 특별한 건강식이 될 터이다. 흔하고 소박하고 무언가를 더하지 않은 음식. 재료 준비에서 조리를 거쳐 음식 섭취까지, 그 일련의 과정이 하나의 수행과 같은 ‘음식’.
‘쉽’이자 ‘휴식’ 같았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제철을 담은 음식을 찾고, 그 맛을 느끼는 기분 좋은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며, 음식이 주는 만족과 위로를 경험하는 일. 한 끼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시간이 되고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건강, 평화, 지혜가 담겨 있는 듯했다.





한 끼의 음식에 담긴 우주의 생명

39살. 간 경화 말기 판정을 받고 ‘음식이 약이라면, 무엇을 먹어야 할까?’ 생각했고, 약이 아닌 것을 하나씩 버리다 보니 식습관을 통해 1년 만에 완쾌한 기적의 경험이 ‘음식은 곧 치유이자 약’이라는 명제를 남겨주어, 선재스님의 사찰음식이 만들어지는 배경이 되었다고 한다.

“모든 재료는 땅, 물, 바람, 햇빛을 머금고 있습니다.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온 우주의 생명을 먹는 것이죠. 내가 먹는 음식이 나를 만들고, 오늘 먹는 것이 내일의 나를 결정합니다. 무엇을 먹느냐는 곧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당신은 무엇을 먹고사십니까.”

음식은 체질을 바꾸고, 건강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마침내 인생을 바꾼다는 것을 먼저 터득한 사람이 건네는 다정한 조언이다.

Overcoming Late-Stage Liver Cirrhosis at Age 39: "Food Changes Lives"

The monk's deep insight stems from her battle with illness at age 39. Diagnosed with terminal-stage liver cirrhosis at the time, she miraculously recovered in just one year through a radical dietary transformation, discarding everything that was not medicinal for her body. By embodying the principle that "food is healing," she finalized her current philosophy of temple cuisine.

에필로그

지난 4월 11일 평창 월정사에서 열린 이 ‘강원 산사에서 특별한 미식’은 강원관광재단이 주관, 온라인으로 총 1만 1천101명이 접속하며 370대 1의 경쟁률을 기록, 단 20초 만에 매진됐다. 이날 전국에서 찾아온 34명의 참가자는 사찰음식 시연과 전나무숲길 걷기, 싱잉볼 명상 체험과 차담까지 먹고, 걷고, 듣고, 즐기며 쉼을 위해 쉼 없이 하루를 보냈다.



"What do you eat to live?"

This gentle question posed by the monk is more than a mere check on one's diet. It is a profound yet warm piece of advice for all of us, suggesting that the daily meal we face can transform not just our constitution and health, but ultimately, our entire lives.

글 : 김혜정 본지 객원 작가 사진 : 박준욱 본지 객원 작가







강원 유형문화유산 · 지정일 1986. 5. 23 · 건립 시기 1915년

사람과 공간이 만나는 말씀의 성당
원주 용소막성당



2024年11月24日
星期日 10:00
弥撒 18:00
晚课 18:30
唱经 19:00

天主教香港教区
圣保禄堂
Baptism
Catholic Church
St. Paul's Church
Baptism

A Sanctuary of the Word Where People and Space Meet: Yongsomak Catholic Church in Wonju

근대건축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가장 가까운 과거가 빚어낸 유산으로,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숨 쉬며 공존하고 있다. 최근 레트로 감성을 찾는 여행자들과 시민, 전문가들의 노력을 통해 그 문화적 가치가 확산되고 있으나, 지역의 소중한 건축 자원을 기록하고 복원하려는 노력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필자는 강원도에서 활동하는 아키비스트이자 사진가로서 지역 근대건축의 흔적을 읽어내고자 한다. 이는 단순히 건물을 살피는 행위를 넘어 우리 지역이 간직한 장소의 기억을 현재와 미래로 잇기 위한 작업이다.

글·사진 / 김시동 본지 객원작가



시간의 견딤으로 지켜온 공동체의 성지

언제 찾아도 변함없는 아름다움과 계절의 아늑한 빛을 머금은 용소막성당으로 발길을 옮긴다. 원주와 제천을 잇는 5번 국도를 따라 금대리 치악재를 넘으면 강원자치도와 충청도의 경계를 이루는 신림면(神林)에 들어선다. ‘신성한 숲’이라는 지명이 품은 의미를 되새기며 행정복지센터를 지나면, 용의 형상을 닮았다는 용소막마을에서 백년의 시간을 품은 단아한 성당을 마주한다. 용암리의 넓은 별판을 굽어보며 자리한 고풍스러운 고딕 양식의 성당은 그 존재만으로도 장소의 영성을 자아낸다. 순례자들은 수려한 건축미에 매료되고, 성전을 수호하듯 둘러싼 다섯 그루의 거대한 느티나무로부터 백년 전의 기억을 읽는다. 붉은 벽돌과 회색 벽돌이 조화를 이루고 뾰족하게 솟은 종탑과 균형 잡힌 건물이 한 폭의 수채화다. 때마침 엄숙한 미사가 진행 중이다. 우연과 필연이 겹쳐진 인연의 순간일까. 문틈 사이로 흘러나오는 장엄한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Designated as Gangwon State Tangible Cultural Heritage: May 23, 1986, Built: 1915

Yongsomak Catholic Church, located in Sillim Township, Wonju City, is a stunning Gothic-style masterpiece that has preserved over 100 years of history. Its roots trace back to a village of believers who sought refuge here during the Byeongin Persecution of 1866. Completed in 1915, it stands as the third Catholic church built in Gangwon State and holds profound historical signific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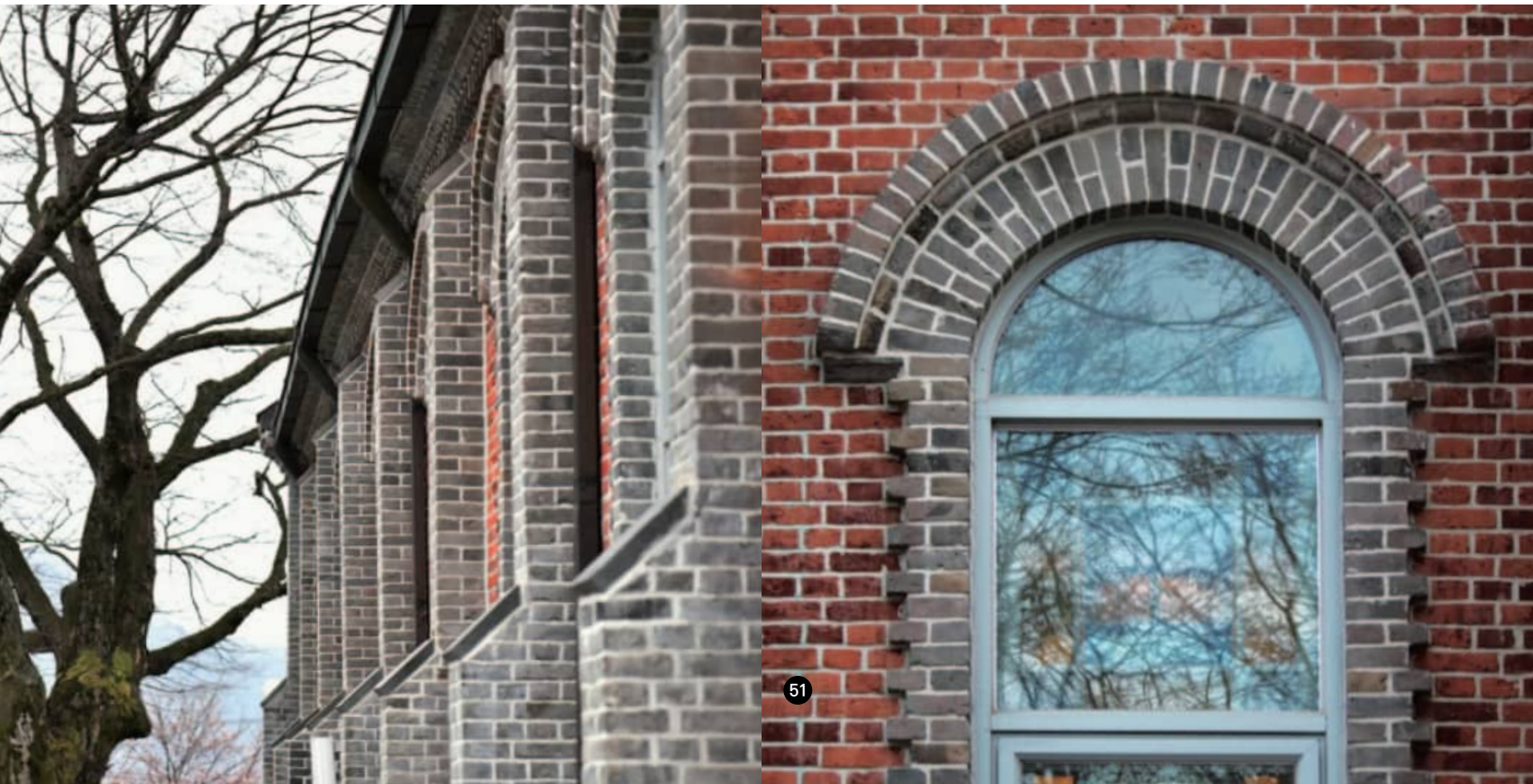
벽돌 한 장에 깃든 신심과 수난의 역사

용소막성당 터에는 전설이 있다. 본래 성당이 들어설 곳은 옛 중앙선 신림역 인근이었으나, 어느 날 나타난 수염 긴 노인이 “30년 후 이곳으로 철마(鐵馬)가 지나갈 것이니 건너편 산 밑에 지으라”는 조언을 남겼고, 그 말에 따라 지금의 자리에 성당이 세워졌다는 이야기다. 예언처럼 훗날 성당 터 앞으로 기차가 지나가게 되었으니, 예사롭지 않은 인연을 품고 있었던 셈이다.

용소막은 1866년 병인박해를 피해 숨어든 신자들이 교우촌을 형성하며 공동체의 뿌리를 내린 곳이다. 1915년에 건립된 이 성당은 횡성 풍수원성당(1888년)과 원주 주교좌 원동성당(1896년)의 뒤를 잇는 강원도 내 세 번째 성당으로, 모진 풍파를 견디며 지역 신앙 공동체의 구심점이자 소중한 건축 유산으로 자리매김하였다.



Designed by Father P. Chizallet, this church is the pinnacle of devotion by the common people. Local believers personally molded the clay, fired the bricks, and transported pine pillars using river currents to build this sacred structure. The exterior, featuring a harmonious blend of red and gray bricks, a soaring bell tower, and semicircular arched windows, creates a scene as picturesque as a watercolor painting. Inside, the octagonal altar and worn wooden plank floors preserve the simple yet reverent charm characteristic of modern architecture.



민초들의 정성과 서구 건축 양식의 만남

현재의 벽돌조 양옥 성당은 1914년 부임한 제3대 주임 시잘레(Chizallet) 신부가 직접 설계했다. 신자들은 마을 가마터에서 직접 벽돌을 구워 날랐고, 뼈대가 될 소나무 기둥들은 장마철 불어난 하천의 물살을 이용해 운반하며 정성을 다했다. 이러한 헌신 끝에 1915년 가을, 마침내 330㎡ 규모의 장엄한 성전이 완공되었다. 종교개혁 이후의 서양식 고딕 건축양식의 일반적인 형태와 구조를 충실히 따르고 있는 회색 벽돌조 성당이다. 정면 중앙에 높은 종탑을 갖춘 네모난 모양의 평면으로 된 붉은 벽돌 구조이다. 창문의 모양은 모두 아치형이며 테두리는 회색 벽돌로 장식했다. 전형적인 8각형 제단과 내부의 목조 기둥, 낮은 널빤지마루는 근대건축의 소박하면서도 경건한 멋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스테인드글라스 창문의 아름다움과 반원형 아치, 창문의 형태 그리고 창 테두리의 벽돌 장식이 아름답다.

Behind its beautiful facade lies a history of painful suffering.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its metal fixtures and bells were confiscated, and during the Korean War, it endured the harsh ordeal of being used as a warehouse and stable by North Korean forces. Following restoration work in 1952, the church overcame its scars to regain its current steadfast



역사의 상흔을 딛고 지켜낸 원형의 가치

용소막성당은 근현대사의 아픔을 온몸으로 겪어낸 증거이기도 하다.

일제강점기를 겪으면서 종(鐘)과 제단의 철제물이 공출되어 일본의 야만스러운 전쟁 도구로 사용되는 수난을 겪었다.



한국전쟁 시기에는 북한군의 군수 창고와 마구간으로 사용되는 모욕을 당했으며, 그 과정에서 사목 문서들이 불타 없어지는 시련을 맞았다.

전쟁으로 인해 부서진 마루 바닥과 총탄 자국들로 엉망이 된 성전 내부는 1952년 부임한 11대 주임 이종홍 그리스도 신부가 보수하여 본래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었다.

and elegant appearance. Right next to the church stands the memorial hall of Father Seon Jong-wan, the first person in the Korean Catholic Church to translate the Old Testament and a native of this land, offering a vivid glimpse into the history of biblical translation.



한국 성서 번역의 요람, 선종완 신부 유물관

성당 옆에는 이곳에서 태어나 평생을 성서 번역과 연구에 몰두한 선종완(라우렌시오, 1915 ~ 1976) 신부의 삶을 기리는 유물관이 있다. 선종완 신부는 한국교회 사상 처음으로 구약성경을 번역한 인물로 근대 천주교사에 큰 족적을 남긴 성서학자다. 세계 각국의 성경과 함께 그가 평생 작업한 번역 및 교정 원고 문치, 그리고 번역 작업을 위해 직접 고안한 삼단 책상 등이 전시되어 있다. 한국 성서 번역의 살아있는 역사를 만나는 공간이며, 우리의 현재가 과거의 역사로부터 이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하는 장소이다.

과거와 현재의 걸음이 만나는 치유의 길

용소막성당은 멈춰진 유산을 넘어 오늘날의 발길이 끊임없이 교차하는 길의 중심이다. 이곳은 천주교 순례길인 ‘님의 길’ 중 ‘선종완 신부길’의 종착지이자, 순교자들이 미사를 위해 배론성지까지 오갔던 ‘성사길’의 시작점이다. 또한 치악산 둘레길 7·8코스가 만나는 지점으로 과거 선조들의 고난과 현대인의 위로가 조우하는 치유의 공간이기도 하다.

신앙의 선조들이 걸었던 고난의 길과 현대인이 위로를 얻기 위해 걷는 둘레길이 만나는 이곳은, 과거와 현재의 걸음이 만나 대화하며 깊은 울림을 주는 진정한 치유의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온전한 계절의 향기를 느끼며 영혼의 쉬이 필요한 이들에게 시간의 견뎌로 지켜온 이 성스러운 공간으로의 여정을 권하고 싶다.

Today, Yongsomak Catholic Church is not a static relic but the living heart of a journey where the Catholic Pilgrimage Route and the Chiaksan Dullegil Trail intersect. Here, the footsteps of ancestors marked by hardship meet the modern steps of those seeking rest, engaging in a dialogue that offers deep solace. For those in need of spiritual respite from busy lives, we recommend a journey to this space of healing, which has stood the test of ti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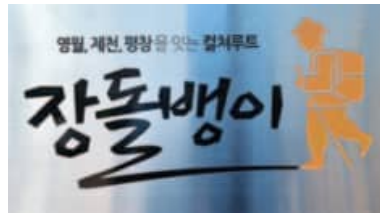
❓ 원주시 신림면 구학산로 1857 (용암리). 033-763-2343





영월의 맛과 자연을 찾아서
가장 영월다운 풍경이 흐르는
영월 덕포5일장

Yeongwol Deokpo Five-Day Market: Where Donggang's Splendor Meets Warm Hospitality



그 옛날 장돌뱅이도 반했을 풍경이다.

마을 중앙에 봉긋 솟은 봉래산(799m)과 그 자락을 유유히 감싸안은 푸른 동강.

가만히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 한구석이 넉넉해지는 영월의 비경 곁에는 언제나 상인들이 깃들어 있다.

영월서부아침시장, 덕포오일장, 주천오일장, 영월공설시장까지. 두메산골 영월에는 고릿적부터 네 곳의 재래시장이 피어났고, 지금도 여전히 장돌뱅이의 낭만과 계보를 이어오고 있다.

Nestled in the remote highlands of Yeongwol, amidst a stunning landscape where Bongraesan Mountain and the blue Donggang River gently embrace the scenery, lies the Deokpo Five-Day Market—a place that faithfully preserves the romance of traveling merchants from days gone by. Held along the riverbanks on days ending in 4 or 9 each month, this traditional market is Yeongwol's representative folk market. It cherishes the joys, sorrows, and rich history of the Deokpo Ferry, which once served as a central hub for water transport on the Namhangang River.





영월의 풍류와 애환을 품은 동강 독길 덕포

그중 발길이 닿은 덕포오일장. 매월 4, 9일로 끝나는 날 동강 천변에 문을 연다.

국내 최초로 ‘자연휴식지’로 선정될 만큼 압도적인 생태적, 경관적 가치를 품은 동강을 온전히 곁에 둔 덕포시장은 ‘영월민속오일장’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며 영월다운 풍경을 자아낸다.

동강을 가로지르는 영월대교를 건너자마자 왼편으로 고즈넉한 제방 산책길이 반긴다.

과거 남한강 수운의 중심지였던 덕포(德浦) 나루터가 있던 곳. 질푸른 동강과 뗏군의 애환이 서린 제방길에 오르면, 시선은 이내 강 건너편 절경으로 옮겨간다.

옛 영월의 풍류가 묻어나는 누각 금강정과 단종의 승하를 슬퍼하며 무녀와 시종이 몸을 던졌다는 낙화암이 한 폭의 수묵화처럼 펼쳐진다.

삶의 애환과 눈부신 대자연이 마주하는 명당 중의 명당, 이 독길을 따라 400여 미터 길게 늘어선 알록달록 간이 천막 아래로, 정감 넘치는 만물상 덕포오일장이 열린다.





As you cross Yeongwol Bridge and stroll along the embankment path, the market unfolds before your eyes. Across the river, Geumgangjeong Pavilion, imbued with ancient elegance, and Nakhwaam Cliff, where court ladies are said to have cast themselves into the water mourning the tragic passing of King Danjong, stretch out like a scene from a traditional ink wash painting. Along this auspicious path where magnificent nature meets the daily lives of the people, colorful tents line the way for about 400 m. From freshly harvested wild greens and vibrant summer seedlings to fresh seafood, Deokpo Market overflows with seasonal vitality.



The highlight of exploring the market is undoubtedly the abundant food that delights all five senses. A feast awaits every visitor, featuring sweet steamed corn—a testament to Yeongwol’s status as the nation’s largest corn-producing region—and chewy Olchaengi Guksu (Corn Noodles), a local specialty uniquely shaped like tadpoles. The refreshing Donggang Daseulgi Haejanguk (Donggang Freshwater Snail Soup), known for soothing the soul, also stands ready to welcome gues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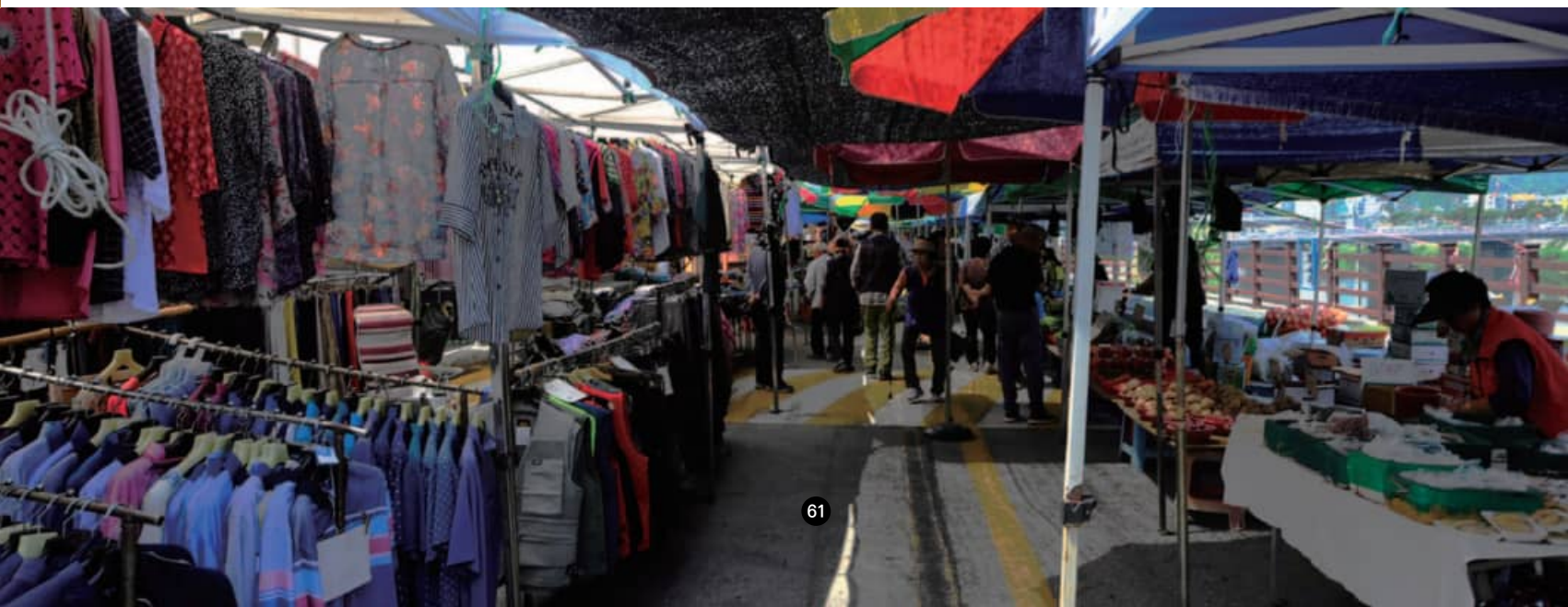
무해한 미소와 오감 만족 영월의 여름 맛

시장을 거닐다 보면 가장 먼저 계절의 변화가 시야를 채운다. 산지에서 갓 캐낸 짙은 향의 산나물, 생기 넘치는 푸른 여름 모종, 봄 내 정성껏 키워낸 각종 농산물, 태백산맥 넘어 도착한 싱싱한 해산물까지 상인들이 정성스레 펼쳐낸 진귀한 물건들이 좌판 위에 반짝인다.

“어디서 오셨어요? 우리 시장 정말 좋아요. 물건도 좋고 사람도 좋고.”

카메라를 든 낯선이에게 경계 대신 무해한 미소를 건네는 상인들.
그 다정한 인사 속에 찢 영월을 마주한 듯 마음이 몽글해진다.

여름의 초입, 전국 옥수수 최대 생산지인 영월의 명성답게 시장 여기저기서 김을 모락모락 피워내는 찢 옥수수가 발길을 붙잡는다. 맛이나 보고 가라며 툭 건넨 썩노란 옥수수를 받아 들고 정신없이 하모니카를 불다 보니, 영월의 달콤함에 어느새 입가엔 기분 좋은 미소가 번진다.



시장은 그야말로 자연에 베푼 더 없는 성찬. 지역 명물 옥수수로 찰지게 뽑아낸 올챙이국수, 속이 확 풀리는 시원한 국물이 일품인 동강 다슬기해장국, 한여름 무더위를 단숨에 날려주는 새콤달콤 묵밥, 가마솥에 자글자글 맛있게 튀겨지는 추억의 옛날 통닭까지, 시장을 가득 채운 영월의 맛에 오감이 빈틈없이 풍족해진다.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호젓하고 낭만적인 영월.

나직한 천막 사이로 오가는 미소 속에 정감이 넘치는 덕포오일장.

오늘도 영월은 먼 훗날 잔잔히 꺼내볼 눈부신 기억을 안긴다.

Deokpo Five-Day Market is filled with warm smiles as people move between the low-slung tents amidst the unchanging tranquility of nature. It is a romantic destination that offers an abundance of Yeongwol's flavors and charms, leaving visitors with gentle and dazzling memories to cherish.





❓ 덕포오일장.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486-28 일원. 033-374-1230
 덕포4리 제2주차장. 영월읍 덕포리 486-2

글 : 전영민 시진 : 박성운, 전영민

미리 기 보는 2026 강릉 ITS 세계총회 2026. 10. 19 ~ 23

ITS 혁신 모빌리티 기술로 열어가는 미래

강릉 도시정보센터

Gangneung ITS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

도시정보센터

Beyond mobility Connected world : Gangneung



최근 강릉의 도로 표정이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다.

연간 2,3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강릉. 인구 20여 만의 도농복합도시에 집중되는 엄청난 교통 수요로, 기존의 도로 확장이나 신호체계 개선만으로는 감당하기 벅찬 과제를 안고오던 강릉이 다가오는 10월 ‘2026 강릉 ITS 세계총회’를 앞두고, 도시 전체를 거대한 스마트 모빌리티 실증 단지로 변모시킨 작업이 하나둘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 교통량 분산과 보행자 안전, 자율주행버스까지 중소형 도시의 미래 모빌리티 모델을 제시하며, 전 세계가 주목하는 최첨단 지능형 교통체계(ITS)의 메카로 탈바꿈한 강릉의 교통 혁명 현장을 지난 5월 직접 찾아가 보았다.

Gangneung City, which welcomes 23 million tourists annually, is transforming into a cutting-edge smart transportation city ahead of the 2026 Gangneung ITS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 World Congress, scheduled for this October. At the heart of this innovation is the Gangneung Urban Information Center, which opened in November 2024. By integrating approximately 3,200 surveillance cameras across the city with AI technology, the center serves as a 24-hour control tower, overseeing traffic distribution, signal control, and disaster response.

중소도시형 ITS 혁신 기술 선도하는 ‘강릉 도시정보센터’

강릉시청(홍제로 1001) 본관 뒤편에 자리한 연면적 2,466㎡(약 746평) 규모의 2층 건물. 강릉 교통 혁신의 심장부로 불리는 ‘강릉 도시정보센터’다. 총 13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지난 2024년 11월 개관하여, 기존보다 3배 이상 확충된 서버와 최첨단 관제 시스템을 갖췄다.

2층 통합관제실 문이 열리자, 벽면을 가득 채운 초대형 상황판이 가장 먼저 시야를 압도한다. 상황판 위로 시 전역에 설치된 3,229대의 CCTV가 전송하는 고화질 영상과 차량흐름 데이터가 쉴 새 없이 명멸한다. 24명의 전문 관제 인력이 4조 3교대로 24시간 상주해, AI와 지능형교통체계 기술을 바탕으로 최적화된 신호 개방과 교통량 분산, 방법, 재난 대응 등 스마트 도시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묵묵히 수행한다. 1층은 ITS 정책과 기술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전시관으로 꾸며졌다. 강릉의 지능형 교통체계를 소개하고 첨단 교통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콘텐츠를 전시해, 연간 3천 5백여 명이 찾고 있다.

The AI and data technologies implemented at the center are dramatically transforming daily life on the roads. Real-time traffic flow and parking information are now integrated with major navigation apps, significantly reducing phantom traffic jams. Additionally, the “AI Unexpected Entry Control System,” introduced for the first time in South Korea at outlying intersections, alongside “Smart Crosswalks,” which detect the walking speed of elderly pedestrians and automatically extend signals, have drastically reduced accident rates and strengthened the pedestrian safety network.





AI외 데이터가 만든 변화, 지체는 줄이고 안전은 높여

도시정보센터의 가장 두드러진 성과는 운전자와 보행자가 체감하는 교통 흐름 개선과 안전도 향상이다. 도시 전역의 359개 교차로에서 수집한 실시간 분석 데이터를 카카오내비, 티맵, 네이버지도 등 주요 내비게이션 플랫폼에 제공해, 운전자가 선제적으로 감속하거나 정속 주행을 유지할 수 있어 도로 위 유령 정체(Phantom Traffic Jam)가 크게 줄어들었다. 주요 명소의 '주차장 잔여면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 주차장을 찾느라 도로를 배회하는 시간도 획기적으로 줄었다.

현장에서 확인한 기술의 디테일은 더욱 놀랍다.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상 외곽 지역에 많은 소규모 회전교차로에 전국 최초로 'AI 돌발진입제어 시스템'을 도입해, 역주행 차량이나 불법 주정차, 보행자가 감지되면 진입부 전광판(VMS)이 즉각 경고를 뽐어낸다.

보행자를 위한 안전 기술도 돋보인다. 거리를 혼잡하게 만들던 각종 지주를 하나로 묶은 '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은 도시 미관을 살리는 동시에 AI 보행자 인식 기능을 갖췄다. 적색 신호 잔여 시간 표시는 물론, 보행 속도가 느린 노약자가 길을 건너면 AI가 통행 패턴을 분석해 보행 신호를 5~10초간 스스로 연장한다. 그 결과, 도심 통행 흐름은 평균 25.91km/h로 기존 대비 24.2% 향상, 교차로 지체시간은 14.5% 감소했다. 노약자 인식 보행신호 연장으로 무단횡단 건수는 90.6% 급감, 신호 시간 내에 건너지 못하는 미 횡단 비율은 65.4%나 감소하며 보행자 안전망이 한층 두터워졌다.

13분에서 5분으로 골든타임 사수, 강릉의 일상이 된 미래 모빌리티

도로 위의 혁신은 생명을 살리는 골든타임 사수로 직결됐다. 센터는 물리적 세계를 가상 공간에 동일하게 복제하여 시뮬레이션하는 디지털 트윈 기반의 '스마트 교차로 영상 분석 기술'을 도입해, 구급차나 소방차가 출동할 때 목적지까지 멈추지

The center is also taking the lead in securing the “golden hour” to save lives. Thanks to the “Emergency Vehicle Priority Signal System,” ambulance arrival times have been slashed from 13 minutes to 5 minutes. Furthermore, autonomous vehicles—a core technology for future mobility, such as the “Autonomous Masil Bus” (a specialized neighborhood shuttle serving suburban areas) and large-scale logistics trucks at industrial sites—have already successfully integrated into the daily lives of Gangneung citizens.



시민중심 적극행정



회전교차로 통행정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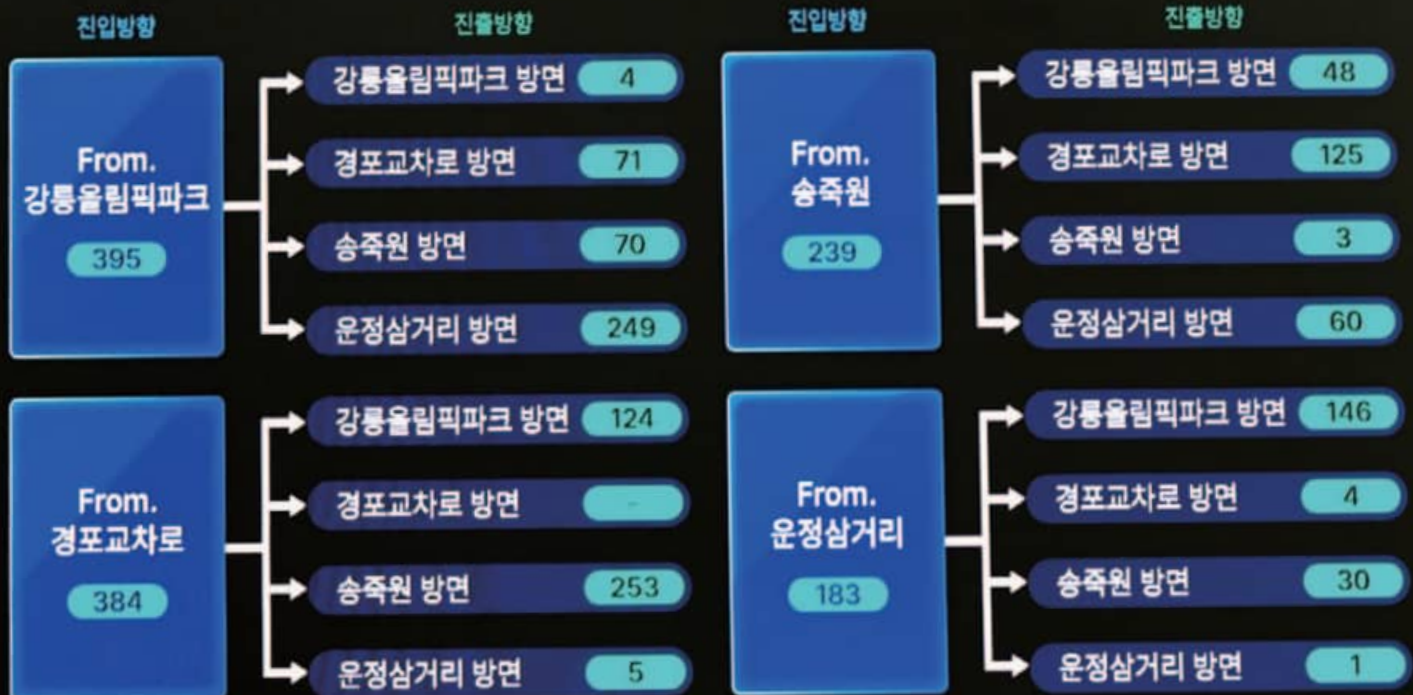
Roundabout Traffic Flow Information

올림픽파크교차로

진입

진출

1시간 주기



교차로별 서비스 수준 분석 LOS: Intersection



않고 달릴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 결과, 긴급차량의 평균 도착 시간은 종전 13분에서 5분으로 60.5%나 획기적으로 단축됐다. 다목적으로 활용되는 촘촘한 CCTV 망 덕분에 경찰 수사 열람 및 범인 검거율 역시 2020년 대비 3~4배 이상 꺾고 뛰며 안전 도시 강릉의 입지를 굳혔다.

미래 교통수단인 자율주행은 이미 대중교통 시스템에 깊숙이 스며들었다. 도시 주요 간선도로 175km에 설치된 자가 통신망을 기반으로, 시 외곽 농어촌 지역의 교통약자를 위한 '자율주행 마실버스'가 매일 도로를 누빈다.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으로 지난해에만 1만 3천여 명이 이용해 전년 대비 278%의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산업 현장도 예외는 아니다. 롯데칠성음료 강릉공장에서 물류센터(RDC)까지 10.5km 구간에는 25톤 대형 자율주행 트럭이 매일 3회씩 주류 완제품을 싣고 달리며, 국내 자율주행 상용화의 선구적 모델을 실증했다.

교통 올림픽 '강릉 ITS 세계총회' 준비 완료, MICE 산업 전초기지로의 도약

현재 강릉시는 총사업비 926억 원을 투입해 강원자치도 최초의 전시 복합 시설인 '강릉컨벤션센터'의 오는 7월 준공을 앞두고 막바지 작업이 한창이다. 컨벤션 센터는 10월 19일부터 닷새간 강릉올림픽파크 일원에서 열리는 '2026 강릉 ITS 세계총회'의 핵심 무대가 되고, 향후 국제회의, 인센티브 여행, 컨벤션, 행사 등에 활용될 계획이다.

이른바 '교통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ITS 세계 총회에 90여 개국의 교통 전문가와 관람객 6만여 명이 찾아, 도로 위에 완벽하게 구현된 첨단 모빌리티 스마트도시 강릉을 직접 확인하고, 미래의 교통정책과 복지, 경제, 산업을 논의한다.

만성적인 교통 체증에 시달리던 관광도시 강릉은 이제 옛말. 지능형 교통체계 ITS로 강릉은 첨단 교통 도시, 새로운 MICE 산업의 전초기지로 도약할 준비를 모두 마쳤다. 오는 10월 ITS 세계 총회에서 펼쳐질 강릉의 혁신 모빌리티 기술을 미리 살펴보고 싶다면, 지금 바로 내비게이션에 '강릉도시정보센터'를 검색해보길 권한다.

With the Gangneung Convention Center—Gangwon State's first-ever convention facility, set for completion this July—serving as its centerpiece, the ITS World Congress will grandly kick off in October. This "Transportation Olympics" is expected to attract over 60,000 visitors from some 90 countries. Having overcome chronic traffic congestion through a fully implemented, state-of-the-art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Gangneung is now poised for a powerful leap forward as a global hub for mobility innovation and a new strategic frontier for the MICE industry.

❓ 강릉 도시정보센터. 강릉시 강릉대로 33 시청 뒤편 건물. 033-640-4347
견학 가능시간 : 오전 10:00, 오후 1부 13:30, 오후 2부 16:00
견학 소요시간 : 60분
견학 가능인원 : 5인 이상 누구나(20인 초과인원은 별도 전화문의)

글 : 전영민 사진 : 박성문

강릉시 도시정보센터

주요도로 정체상황 Major Road Congestion Status

강변로 화부산로 남부로 고동광장 가작로 영로 경강로 경강로



2026 평창대관령음악제 계승과 혁신을 주제로 The 23rd Music in PyeongChang Concert Legacy and Innovation 7월 23일부터 8월 2일까지

올해 23회를 맞는 평창대관령음악제는 7월 23일부터 8월 2일까지 계승과 혁신을 주제로 평창 알펜시아 콘서트홀, 대관령 야외공연장 및 춘천, 강릉, 원주 등 도내 일대에 열린다.

양성원 예술감독은 “수백 년에 걸쳐 쌓아온 작곡가들의 작품들은 단지 과거의 산물이 아니라, 현재 살아 숨 쉬며 새로운 창작의 토양이 되는 예술의 토대로 이러한 예술의 흐름 속에서 계승이 어떻게 혁신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며 “예술이 어떻게 인간의 깊은 내면을 울리며 우리 시대의 언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조명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라고 밝혔다.

콘서트 19회, 찾아가는 음악회(Outreach Concerts) 10회, 찾아가는 가족음악회 5회, 음악회 기간에 열리는 대관령아카데미 시즌 교육프로그램 MPyC Academy와 다양한 부대행사가 준비된다. 개막공연은 7월 23일(목) 오후 8시 대관령 야외공연장에서 바흐의 곡으로 선우예권의 피아노, 평창페스티벌오케스트라가 한스 그라프 지휘로 무대에 오른다.

Celebrating its 23rd anniversary this year, Music in PyeongChang will take place from July 23 – August 2 under the theme “Legacy and Innovation.” The festival will be held at the PyeongChang Alpensia Concert Hall, the Daegwallyeong Outdoor Stage, and various venues across Gangwon State, including Chuncheon, Gangneung, and Wonju. The festival program features 19 main concerts, 10 Outreach Concerts, and 5 Family Outreach Concerts. Additionally, it includes the MPyC Academy—the Daegwallyeong Academy’s seasonal education program—alongside a variety of special events. The opening concert will be held on Thursday, July 23, at 8:00 PM at the Daegwallyeong Outdoor Stage. The performance will feature the works of Bach, performed by pianist Yekwon Sunwoo and the PyeongChang Festival Orchestra, conducted by Hans Graf.



2026 평창대관령음악제
The 23rd Music in PyeongChang

계승과 혁신
Legacy and Innovation



2026. 7. 23. – 8. 2.
평창 알펜시아 콘서트홀, 대관령 야외공연장

Artistic Director Sung-Won Yang

주최 강원특별자치도
주관 (재)강원문화재단

info. 대관령음악제
033-240-1364 mpyc.kr

시원^{始原}의 숨결을 따라

2026 강원아트나우 강원문화재단 기획전

시원(始原)의 숨결을 따라 :
20인의 강원 이야기

강원, 그 영원한 시원으로의 귀향

Breath of Gangwon

2026 . 5 . 28
- 6 . 18

춘천문화예술회관 전시실

2026년 신록의 계절, 강원문화재단은 강원 대지에서 생의 첫 숨을 틔우고 각자의 예술 세계를 일궈온 20인의 시각예술가들과 함께 특별한 귀향의 자리를 연다.

이번 기획전 「시원(始原)의 숨결을 따라 : 20인의 강원 이야기」는 단순한 작품 전시를 넘어, 예술가들의 삶 가장 깊은 곳에 새겨진 고향의 기억을 채록(採錄)한 전시다.

강원은 누군가에게는 낙후와 소외의 땅이었으나, 여기 20인의 예술가들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절대 미감’의 근거이자 예술적 생명을 공급받는 ‘영혼의 뗏줄’이었다. 척박한 산간 문화와 유순하면서도 묵직한 강원인의 뚝심은, 화려한 타향의 문화를 모방하지 않는 주체적이고 독창적인 예술혼으로 피어났고 이번 전시는 성공과 실패를 모두 통과한 작가들이 결국 본능적으로 회귀하게 되는 ‘존재의 원점’으로서의 강원을 조명한다.



In the lush greenery of 2026, the Gangwon Art and Cultural Foundation hosts a special homecoming for 20 visual artists who drew their first breaths in Gangwon and have since cultivated their own unique artistic realms. This special exhibition, “Following the Breath of the Origin: 20 Stories of Gangwon Artists,” transcends a mere display of artwork; it is a profound journey that captures the memories of home etched deep within the lives of these artists.



「목탄으로 탄생한 달빛 녹턴, 이재삼」, 「나무에 새긴 생명의 노래, 전항섭」, 「영원히 멈춘, 살아있는 시간과의 조우, 김태호」, 「백토로 빛어낸 20년, 정두섭」, 「천위에 피어난 예술의 정원, 김명숙」, 「굴레마저 포용한 인간 나무, 안재홍」, 「찰나의 총위, 회귀의 풍경, 원인중」, 「세상을 향한 시선의 전복, 김한국」, 「'먹빛'으로 탄생한 자연의 송고미, 신철균」, 「망치를 든 행복한 시지프스, 장국보」, 「슬픔처럼 순결하고, 가득하고, 끝내 따뜻한, 황효창」, 「60년 화업, 겹겹의 시간을 넘어 마음의 보자기를 싸는, 전광영」, 「푸른빛 '시원'을 기억하는, 백중기」, 「연민으로 감싸안은 '투박한 존엄', 김진열」, 「자유, 해체 그리고 새로운 연결, 홍성도」, 「손끝으로 빛어낸 '우리 얼굴', 백윤기」, 「빛 앞에선 불굴의 인간 군상, 한영욱」, 「형상 속에 새겨진 연(緣), 양재건」, 「지각의 경계에서, '흐림'의 미학, 임태규」, 「과거와 현재의 고고학적 조우, 임근우」

형식과 매체는 다르지만, 작업 기저에는 강원의 흙과 바람, 그리고 사람에 대한 끈질긴 연민이 자리하고 있다.

작품과 나란히 한 예술가의 세계가 어떻게 강원에서 그 시원(始原)을 형성하는지를 생생히 증언하고 있다.

더 이상 변방의 풍경이 아닌 강원의 자연. 일상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고 20인의 숨결을 따라가는 이 여정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직된 '존재의 시원'과 마주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While Gangwon may have been perceived by some as a land of stagnation and marginalization, for these 20 artists, it has served as the unshakable foundation of their “absolute aesthetic” and the “spiritual umbilical cord” that nourishes their artistic lives. This exhibition spotlights Gangwon as the “Primal Origin of Being”—the place to which artists instinctively return after weathering the seasons of both success and failure. Though their forms and media vary, at the core of their work lies a tenacious compassion for the soil, the wind, and the people of Gangwon. Each piece vividly testifies to how the artists’ worlds found their very source in this land. No longer a peripheral landscape, the nature of Gangwon now stands at the center. As you set aside the burdens of daily life and follow the breath of these 20 artists, we invite you to encounter the “origin of being” held deep within your own heart.



❶ 전시 안내 : 시원(始原)의 숨결을 따라 : 20인의 강원 이야기, 전시기간: 2026. 5. 28.(목) ~ 6. 18.(목) / 18일간 (월요일 휴무) 글 : 신지희 강원문화재단 전문위원
전시 장소 : 춘천문화예술회관 전시장, 주최·주관: 강원특별자치도, 강원문화재단

폐교에서 국내 최초의 소 생추어리가 되기까지 인제 달뜨는마을 사람들과 꽃풀소 이야기

“소를 살리려고 시작한 일이, 결국 마을을 살리는 일이 되었어요.”

위기에 처한 생명을 품겠다는 인제 산골 마을의 작은 선택은 소멸해 가던 마을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 넣은 거대한 기적이 되었습니다. 도축 위기에서 구출한 소들과 그들을 따듯이 품어준 신월리 사람들. 문 닫힌 산골 학교가 생명 존중의 상징인 ‘생추어리(Sanctuary, 동물보호보금자리)’로 거듭나기까지 고군분투한 동물해방물결 활동가들. 생명과 공존이라는 눈부신 희망의 대서사시를 써 내려간 신월리 마을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인제의 첩첩산중, 푸른 보석처럼 맑고 청량한 기운을 품은 신월리(新月里)로 들어서는 길은 묘한 기대감을 자아낸다. 산과 호수가 빚어낸 지형이 마치 초승달을 닮아 ‘달뜨는마을’이라 불리는 마을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지방 소멸의 파도 앞에 위태롭게 서 있었다. 1973년 소양댐 건설로 정든 고향이 수몰되는 아픔을 뒤로하고 산비탈 고지대로 터를 옮긴 주민들. 50여 가구, 80여 명의 주민 중 절반 이상이 65세를 훌쩍 넘긴 적막한 산골 마을은 놀랍게도 지금 그 어느 곳보다 뜨거운 생명력과 청년들의 푸릇한 생기로 요동치고 있다. 이 거대한 기적은 버림받은 여섯 소에서 시작했다.

버림 끝 생명들, 달뜨는마을에 불시착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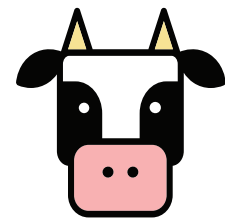
마을 한 가운데 위치한 옛 폐교. 비탈길을 따라 올라간 뒷동산에 커다란 눈망울을 곰박이며 여유롭게 풀을 먹는 홀스타인 소들이 보인다. **머위, 메밀, 창포, 부들, 영.** 어엿한 이름을 가진 이들은 한때 도축장의 서늘한 칼날 앞에 서 있던 생명들이었다.

2021년, 동물권 시민단체 ‘동물해방물결’ 활동가들은 인천의 한 불법 개 농장 옆에서 도살 위기에 처한 홀스타인 수소 여섯을 극적으로 구조했다. 들꽃처럼, 들풀처럼 강인하게 살아남으라는 염원을 담아 ‘꽃풀소’라는 다정한 이름을 지어 주었다. 문제는 이 덩치 큰 소들이 평생 살아갈 안식처를 찾는 일. 보금자리를 찾지 못해 애태우던 청년들의 간절함이 DMZ 평화생명동산 정성현 이사장의 도움과 인제군 로컬투어사업단의 연계로 신월리에 닿았다. 구조된 후, 인제 서화면 하늘내린목장에서 1년 3개월간 따뜻한 셋방살이를 하던 소들에게 영구적인 안식처가 마침내 생겨났다.

“처음엔 마을 어르신들이 소를 반려동물로 키운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셨어요. 청년들이 진심을 담아 연 마을설명회를 들고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남들은 엄두도 못 내는 일, 생명을 보호하겠다는 그 마음이 참 귀하다고 생각하셨어요. 얼마 전 우리 마을 인구가 드디어 100명을 넘었어요. 꽃풀소와 청년들이 이주해 온 덕분이에요.”

(김경림 달뜨는마을 신월리 체험마을 사무장)

Deep in the mountains of Inje, Gangwon State, lies Sinwol Village—often called "Dal-tteuneun Maeul" (The Moon-Rising Village) because its terrain, carved by mountains and lakes, resembles a crescent moon. This village was once on the brink of aging and rural extinction. However, it miraculously regained its vitality when six cows, dramatically rescued from the verge of slaughter, unexpectedly arrived he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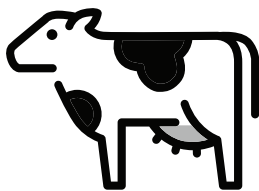
폐교의 화려한 부활, ‘달뜨는보금자리’와 ‘풀무질’

신월리 주민들은 마을의 새 식구를 위해 2019년에 문 닫은 신월분교 터를 30년 동안 소 보금자리로 기꺼이 내어주었다. 꽃풀소들이 마을에 정착하자, 자연스레 청년들의 이주도 뒤따랐다. 소의 평균 수명에 맞춘 ‘30년 업무협약’은 쇠락하던 마을에 청년들이 뿌리를 내리겠다는 다정한 약속이 되었다. 이주를 앞두고 안타깝게도 미나리가 급성 패혈증으로 숨을 거두는 슬픔도 있었지만, 남은 다섯의 꽃풀소는 이제 어엿한 신월리의 식구로 자리 잡았다.

정부와 지자체도 팔을 걷어붙였다. 인제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 26억 원을 투입해 청년들의 정착을 돕기 위한 주거 시설을 조성했고, 2024년 신월리가 행정안전부 ‘생활권 단위 로컬 브랜딩 지원사업’에 선정되며 국내 최초 비건 마을 건립이라는 원대한 꿈에 닿을 올렸다. 그렇게 버려진 폐교는 국내 최초의 소 생추어리 ‘달뜨는보금자리’로, 낡은 교사(校舍)는 복합문화공간 ‘인제 풀무질’로 소생했다.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오래된 책 냄새가 코끝을 스친다. 풀무질은 1986년 서울 혜화동 성균관대학교 앞에서 문을 열어 민주화 운동의 아지트 역할을 했던 유서 깊은 인문사회과학 서점으로, 2019년 동물해방물결 전범선 이사장이 인수한 뒤, 비건 청년마을 조성 사업과 맞물려 버려질 위기의 책들을 이곳에 가져와 새 생명을 불어넣었다. 서고를 가득 채운 책들은 지역 공공도서관과 전국 각지의 후원자(살리미), 학자들로부터 기부받았다. 동물을 구조해 살리듯, 헌책을 순환 시켜 ‘책살림, 마음살림, 마을살림’을 실천하겠다는 청년들의 굳은 의지가 책장마다 촘촘히 배어 있다.

In 2021, when young activists from the animal rights group Animal Liberation Wave were searching for a permanent home for six Holstein bulls rescued from slaughter, the elders of Sinwol Village generously offered the site of the closed Sinwol Branch School for 30 years. The villagers affectionately named the cows "Kkotpulso" (Flower-Grass Cows), wishing for them to live with the resilience of wildflowers and wild grass. As the cows settled in, 11 young people naturally migrated to the village. The abandoned school has been spectacularly reborn as "Dal-tteuneun Bogeumjari" (The Moon-Rising Sanctuary), a haven for the cows, and "Inje Poolmoojil," a multipurpose cultural space that relocated a historic bookstore.





30년의 약속, 비건(Vegan) 촌(村)으로 피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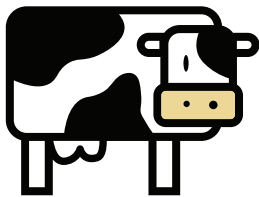
지금까지 신월리로 삶의 터전을 옮긴 청년은 총 11명. 적은 수일지 모르나, 이들이 만든 파동은 거침이 없다.

마을 청년회를 번듯이 꾸리고, 달뜨는마을 협동조합을 설립했다. 마을청년회장을 맡은 동물해방물결 이지연 대표를 주축으로 ‘비거니즘(Veganism)’을 기반으로 한 로컬 브랜딩 사업을 펼치고 있다. 새롭게 탄생한 마을 로고 아래, 꽃풀소 돌봄 체험과 비건 문화 체험 등 차별화된 체험 프로그램이 입소문을 타면서 한적했던 마을에는 외지인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작년에는 빵 굽는 청년 둘이 이사를 왔어요. 연관 지원사업 덕분에 비건 베이커리(달빵, 달쿠기)를 개발해 팔 수 있었죠. 꽃풀소 키비주얼을 활용한 포장까지, 축제에 방문하신 분들에게 인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청년들은 로컬 브랜딩 사업의 일환으로 마을 농산물을 활용한 비건 음식을 개발해 자생적인 수익 창출에 나섰다. 이들의 감각적인 SNS 홍보는 마을 농산물 직거래와 체험관 숙박으로 이어지면서, 실질적인 마을 경제 활성화로 직결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3일, 달뜨는보금자리 개관식과 함께 마을 첫 커뮤니티 축제 ‘뉴문페스티벌(New Moon Festival)’이 열려 비건 플리마켓과 꽃풀소 영화제, 공연이 성황리에 진행됐다. 한때 우려했던 원주민과 이주 청년 간의 세대 차이는 기우일 뿐. 어르신과 청년은 한데 모여 마을의 내일을 이야기하고, 동물과 사람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다정한 내일을 함께 그려갔다.

With the arrival of these young residents, the village population finally surpassed 100. Backed by strong support from the local government, they are cultivating Sinwol Village into South Korea's first "Vegan Village." Creative local branding, including Kkotpulso care programs, vegan festivals, and the development of bread and cookies using local produce, has transformed the once-quiet mountain village into a vibrant destination attracting a steady stream of visitors. Last October, the village celebrated the opening of the sanctuary and hosted its first community festival, the New Moon Festival, where long-time residents and newcomers joined together to envision the village's fu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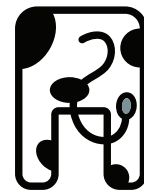


에필로그: 공존이 빚어낸 아름다운 로컬 브랜딩, 소멸을 희망으로

“마을이 조화롭게 발전해나가길 바라요. 올해는 디지털한 방식으로 관계 인구를 모으고, 이분들이 커뮤니티로 이어져 마을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시도해보려고 합니다. 사업이 커지고 사람이 많아질수록 변수도 많아 지겠지만, 그래서 더더욱 청년과 어르신이 잘 소통하고 조화를 이루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지연 동물해방물결 대표)

소를 살리기 위해 시작된 청년들의 무한도전은 그 낮은 진심을 넉넉한 품으로 안아준 신월리 주민들을 만나 마을을 살리는 일이 되었다. **지방 소멸 위기를 생명 존중과 공존이라는 따뜻한 방식으로 돌파해 낸 신월리.** 자연과 사람, 그리고 동물이 동등하게 호흡하는 새로운 공동체는 대한민국 로컬 브랜딩에 혁신적이고 감동적인 이정표로 자리 잡았다. 이제 막 서막을 올린 달뜨는마을이 앞으로 써 내려갈 또다른 기적의 이야기가 벌써 애뜻하게 기다려진다.

The boundless determination of these young people to save the cows, met with the warm solidarity of the village elders who generously embraced them, has become a powerful source of hope that revived a fading community. By taking in abandoned lives, Sinwol Village has proven the profound value of coexistence—a place where people, animals, and nature breathe together as equals.



❓ 신월리 달뜨는마을 체험관. 인제군 남면 신월로 414. 033-461-8707

글 : 전영민

사진 : 이승천 동물해방물결, 박성운





특별한 강원인

김성겸 스노보더를 만나다 하이원 스포츠단 소속

평창 봉평 들판을 달리던 육상 선수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평균대회전 은메달리스트가 되다



Q. 많은 것이 달리졌을 것 같은데,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네, 맞아요. 정말 빠르게 흐르네요. 인터뷰도 하고, 방송 출연도 하고, 재계약도 하고,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아직 부모님 얼굴도 직접 못 뵈었어요. 전화 통화만 했습니다. 귀국할 때 많은 취재진을 보고 놀라기도 했지만, 메달을 땀다는 실감을 잘 못 했죠. 달라진 것을 잘 느끼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대외적으로 밀려오는 일들이 많아지고 보니 체감이 되더군요. 운동 선수에게 올림픽 메달이란 꿈 같은 일이잖아요? 이제 두 달 남짓 지났는데요,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요즘도 매일 운동은 하고 있지만, 실전 감각을 놓치지 않으려고 설상 훈련을 하기 위한 준비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Q.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나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천식으로 병원을 자주 가다 보니, 보다 못한 부모님이 운동을 시키신 거죠. 초등학교 4학년부 터 육상을 했는데 꾸준히 하다 보니 건강도 좋아지고 중학교 3학년이 되니까 키가 178cm가 됐어요. 체격이 있으니까 다양한 운동을 했었는데 우연히 보드를 타볼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학교에 스노보드부가 만들어지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때는 등록 선수가 전국에 300명도 안 되는 비인기 종목이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긴 하지만요. 육상 80m와 멀리뛰기, 높이뛰기 선수로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힘을 쏟아내는 운동을 해왔던 터라 잘 맞았어요. 스노보드는 30~40초에 승부를 결정짓는 종목이죠. 그래서인지 성과가 빨리 나더군요. 2011년에 동계 유니버시아드에서 아시아 최초 금메달을 땀죠. 그땐 금방 무언가 될 줄 알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체육대를 졸업하고 나니 갈 데가 없는 거죠. 실업팀이 없었거든요. 국가대표에서 탈락하니까 한 달에 50~60만 원이던 수당도 끊기고 정말 막막했죠. 그래서 일용직 막노동을 했어요. 시즌이 끝나는 3월과 대표팀 선발전을 치르는 5월 사이의 4월 휴식기 중 약 20일은 막노동을 했어요. 훈련 기간에도 주말 중 하루는 아르바이트를 뛰었죠, 닥치는 대로.



BLACK
EDITION

VIRUS

ALPHEX

MADE IN SLOVENIA

ALPHEX

ALPHEX

Q. 가족에게 김시를 전하는 인터뷰 영상이 회제가 되었는데요.

예, 정말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아내를 언급하던 그 순간에 갑자기 먹먹해지는 거예요. 부상이 걱정돼서 생방송을 귀로만 듣는 아내와 가족이 생각났나 봅니다. 알파인(평행대회전 등)과 프리스타일(하프파이프, 슬로프스타일, 빅에어 등)이 부상 위험도가 좀 높은 편이니까요. 또 아버지가 암 투병 중이었는데 말씀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주 나중에야 알게 됐었죠. 농사짓고 스키장 렌탈 shop도 운영하면서 오랫동안 뒷바라지해 주셨거든요. 아버지 모습도 떠오르고 그랬죠. 또, 주변에서 도움을 준 많은 분도 스쳐 가더군요. 방송에서도 밝혔지만, 봉민호 감독님도 적금을 깨서 해외 전지훈련 비용을 대주셨죠. 묵묵하게 응원해 준 이 분들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으니까요. 지금의 저는요. 되돌릴 수도, 포기할 수 없었으니 언젠가 해낼 거라는 믿음으로 계속해 나가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선수 생활을 한 지 24년 정도 됐는데, 힘든 상황을 좋은 결과로 보답할 수 있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16년이란 긴 도전 끝에 얻은 성과를 나눌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Q. 16년이란 세월을 버티고 이겨낸 방법은 무엇인지요?

2019년 국내 첫 스노보드 실업팀이 창설되고 하이원 스포츠 소속으로 입단하면서 비소로 생계 문제에서 벗어나면서 변화가 생겼어요. 훈련에 집중할 시간이 더 많아졌죠. 현 소속팀 입단 후에는 하루하루가 감사했죠. 온전히 훈련에만 몰입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이원에 입단하는 과정도 전혀 쉽지 않았습니다. 나이도 적지 않았고, 해당 지역 출신 선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입단 초기에는 지역 내에서 반대 의견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처음 입단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일을 알게 됐죠. 그런데도 저를 선택해 주었고, 그 선택으로 그동안 생계 부담에서 벗어나서 연습에 집중할 수 있었고, 오랜 지원 끝에 이번 올림픽에서 은메달로 보답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지금도 국내에는 실업팀이 2개밖에 없어요. 대표팀에도 남자 다섯에 여자 한 명인데 실업팀 소속 선수는 4명 이거든요. 아직도 여건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저번확대가 덜 되어있는 상태고요. 또 아무래도 눈이 점점 적게 오고 하다 보니 스키나 스노보드를 즐기는 사람들도 줄어들어 선수층도 좁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요. 비인기 종목 선수들이 도전을 계속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예요. 저도 사실상 실업팀에 소속되고 나서야 현지 훈련 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보살핌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정신력 훈련 프로그램이 크게 도움이 되었어요. 향기로 기운을 다스리는 아로마 요법을 받고 나서 마음의 안정을 유지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었죠. 시합을 앞두고 정신을 집중할 수 있도록, 또 성적이 좋지 않아도 일희일비(一喜一悲)하지 않도록 동요하는 마음을 누르고, 다음 시합에 온전히 몰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나만의 방식을 가질 수 있었어요. 제일 중요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평상심을 유지하는 거죠.



Q.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으실까요?

4년 뒤 올림픽에 한 번 더 출전하고 싶습니다. 이제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금메달을 노려보려고 해요. 세계 선수권과 월드컵에서도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하려고요. 아직은 현역 선수를 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도전해야지요.

할 수 있는 때까지 현역 선수로 활동을 하고, 그 이후는 천천히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4월 21일에는 해외 전지훈련이 잡혀있고요, 5월부터 대표팀 훈련도 있습니다. 7월에는 개인 설상 훈련, 10월에는 대표팀 설상 훈련이 잡힐 겁니다.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해서 중간중간 계속 눈을 찾아서 개인적으로 설상 훈련을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이제는 절박함에서 벗어나서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도전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현재 그의 거주지는 용인. 하이원 스포츠단 소속으로 당시 올림픽 시상식에 올라 큰절로 국민에게 한국식 인사를 하고 로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마음으로 응원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고 화답했던 김 선수는, 지난 3월 31일 고향 평창을 찾아 2018평창기념재단을 방문해 자신이 올림픽에서 착용한 헬멧, 고글, 장갑, 경기복, 보드를 기증했다.

누군가에게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앞으로 동계스포츠의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되고 싶었던 마음이라고 했다.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4년 뒤 올림픽 경기에서 다시 한번 그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기대했다.



글 : 조은노 사진 : 주민욱 본지 객원 작가, 연합뉴스, 2018평창기념재단홍보팀

The Pride of Gangwon :

2026 Olympic Silver Medalist Kim Sang-kyum

On February 8, just one week before this year's Lunar New Year holiday, the electrified voice of a commentator echoed during the live broadcast of the 2026 Milan-Cortina Winter Olympics: "The veteran's dream, Kim Sang-kyum, racing toward the finish line! He crosses the line. South Korea's first medal, and the 400th Olympic medal in the nation's history—it's a silver!"

Joyful news reached South Korea from the Livigno Snow Park near Cortina d'Ampezzo, Italy. It was the moment Kim Sang-kyum secured the silver medal in the men's parallel giant slalom (alpine) Big Final. He blazed through the course in 44.41 seconds, proudly claiming second place in the world by a mere 0.19 seconds.

At age 37, standing on the podium of his dreams after his fourth Olympic attempt, he remained stoic throughout the competition and the ceremony—except for the brief moment he clinched the medal in the semifinals. However, after the event, he finally broke his composure during a media interview, shedding tears as he expressed his gratitude for his wife's unwavering patience. Kim's silver medal drew significant attention for many reasons. Individually, he broke the record for the oldest medalist in South Korean history and became only the second athlete in the nation's history to win an Olympic medal in a snow sports discipline.

Furthermore, his achievement earned the prestigious distinction of being the 400th Olympic medal ever won by South Korea across both the Summer and Winter Games.

A disqualification in his Olympic debut at Sochi 2014, a heartbreaking exit in the round of 16 at PyeongChang 2018, and a failure to qualify for Beijing 2022. After three bitter setbacks, his fourth attempt finally led to glory. We cheered wholeheartedly for the man who overcame 16 years of trials with nothing but unyielding determination. A graduate of Bongpyeong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in Pyeongchang, he shared his gratitude: "I am able to stand here today thanks to the unwavering support of Gangwon State, and I sincerely thank the residents who cheered for me with one heart." We met him as a truly special son of Gangwon. Although he currently resides in Yongin, Kim returned to his hometown of Pyeongchang on March 31 to visit the PyeongChang 2018 Legacy Foundation.

There, he donated the very helmet, goggles, gloves, competition suit, and snowboard he wore during his Olympic journey. He expressed his hope that these items might inspire others and his desire to contribute to the ongoing development of winter sports. On my way back from the interview, I found myself deeply hoping to see him compete on the Olympic stage once again four years from now.

지난 30년, 동트는 강원과 함께해 주신 독자의 시간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동트는 강원 창간 30주년을 기념해 전국 방방곡곡에서 보내온 반가운 편지 중,
유난히 깊은 다정함으로 편집진을 미소 짓게 한 다섯 분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편편 인증!

한 글자 한 글자 애정이 듬뿍 담긴 애독자의 전지적 독자 시점으로 바라본 특별한 이야기.

'Dear. 동트는 강원' 그 따뜻한 마음을 지면에 띄워 보냅니다.

일러스트 : 최혜선





1. 동트는 강원, 내 마음속에 저장(한미현, 서울)

외출 후 우편함에서 꺼내 든 ‘동트는 강원’은 표지부터 봄기운이 가득해 마음마저 환하게 밝혀 주었습니다. 평소보다 두툼한 두께에 괜히 더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동트는 강원’ 창간 30주년! 벌써 그렇게 되었나 싶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강원을 저장해 주는 잡지로 오래 함께하길 바랍니다.

모든글보기



2. 이제 청년의 나이 동트는 강원, 처음 접했던 제58호! (최동희, 강릉)

17년 전, 2009년도에 우연히 동트는 강원 제58호를 읽게 되어 줄 곳 애독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30년을 주제로 한다기에 처음 접했던 제58호 지면 가장 기억에 남았던 기사를 찾아보았습니다.

역사의 기록이자 강원도민의 대표적 얼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동트는 강원. 올해로 창간 30주년이라 하니 인생 주기로 보면 활력이 가장 넘치는 청년기가 아니겠어요.

모든글보기





3. 길라잡이 '강원 이해 내비게이션', 동트는 강원 (김영준, 춘천)

모든글보기



동트는 강원을 통해서 강원도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얻고 있어요. 푸르른 동해와 신규 관광지, 축제 현장, 역사적 장소 등 긴 세월이 지나면서 더 꼼꼼하고, 알차고, 유익한 기록은 강원도의 역사책처럼 느껴져요. 창간 30주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지켜이 쌓인 나이트 같은 정보들이 있다는 점은 강원도민들에게 큰 자산이 되는 것 같아요.

동트는 강원, 아자!

4. 다가올 50년, 100년의 희망을 담아내는 매체가 되기를... (조영모, 서울)

모든글보기



앞으로도 시대 변화와 혁신에 부응해 다가올 50년, 100년의 희망을 담아내는,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의 정신으로 날마다 새롭게 발전하여 전국 독자들의 사랑을 받는 훌륭한 매체로 더 성장하기 바랍니다. 단순한 출판물이 아니라 강원도의 또 다른 값진 역사이고 독자에게 큰 울림을 주는 소중한 발자취를 남길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5. 오래된 반가운 친구, 동트는 강원(김영대, 원주)

모든글보기



‘동트는 강원’이라는 신박한 잡지를 보게 된 것은, 사진까지 곁들여 살살이 세밀하게 보여주니 매우 좋아하게 되어 당일로 구독 신청하고 지금껏 읽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외형도, 내용도, 더 단단해지고 유익해져 너무 좋습니다. 생활인에게 숨은 곳곳을 대신 찾아주고, 즐길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어주는 ‘동트는 강원’은 충족 욕구를 꼭 채워주는 선물입니다. 강원 곳곳을 잘 알려주고, 보여주는 훌륭한 친구 덕분에 매우 행복합니다.



2026년 동트는 강원과 함께 하는
소셜 크리에이터!



● **고광민(트래블광)** : blog.naver.com/ggm0724, www.instagram.com/travel_gwang

시내·농어촌 버스 시간표, 도보 이동 거리 등 대중교통 정보를 공개해 실제로 따라 할 수 있는 여행 콘텐츠를 제작. 두박이의 시선으로 방방곡곡 걷고 경험한 '차 없이도 가능한 강원 여행'을 선보일 여행 기록자.

● **권세갑** : www.youtube.com/@SHOWMAN_K

걸으며 바라보는 시선을 따라 촬영, 지역의 이야기를 조용한 해설로 담아내 구독자 57,400명을 보유한 유튜브. 풍경, 역사, 문화를 감성적인 영상미와 함께 지역의 가치와 매력을 잘 드러내는 여행 다큐 채널 운영자.

● **권오룡** : www.instagram.com/freewindy_, blog.naver.com/journeyman87

일상을 벗어나기 딱 맞춘 강원 곳곳의 사계절, 아이와 함께 가기 좋은 여행지, 인생 사진을 남길 수 있는 곳을 찾아내 알리고 '강원 여행'을 주제로 글을 쓰고, 단행본도 만들고 싶은 여행 사진가.

● **김태상** : blog.naver.com/bluepoto3, www.instagram.com/kim.taesang

지난해에 이어 2026년에도 강원 소셜 크리에이터로 선정되어 가족과 함께 1박 2일 여행 코스와 더불어 축제의 특별함을 부각해 가볼 만한 곳으로 글과 사진으로 소개하고 추천할, 16년 차의 여행 전문 블로그 운영자.

● **박종혁** : www.instagram.com/50yearsdiary, blog.naver.com/wa_daejeon

수묵담채화를 그리던 한국 화가이자 미디어 아트 전공자로 특유의 감성을 담은 드론 영상과 BGM, 해설을 더해 짧은 영화 같은 강원의 이야기를 만들어 강원의 특별함을 널리 소개할 여행가.





동트는 강원 엽서에 회신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총 90분이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었습니다

“

”

통권 153호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만족이 96.7%로
나타나 편집진에게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응답자 비율 중 50대 이상 96.7%였으며
#제철 키워드 콘텐츠에 대한 반응이 좋았고
만족 콘텐츠는 벚꽃 31% > 삼굿 27% > 동해선 탑승기 13% 순이었습니다.

동트는 강원에서 보고 싶은 소식은

푸드·관광 명소 39.4% > 자연 13% > 역사 9% 순이었으며
알고 싶은 정보 유형은 관광 53.5% > 정책 20.5% > 맛집 15.8%로 집계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수용하여 이번 호부터 근대 건축 시리즈와
마을 청년 이야기를 신설하고,
독자 투고 지면도 크게 늘렸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90명 중 20명 무작위 추첨, 선정되신 분께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강원이특별이 만년노트(10명)

홍*무(강동), 장*관(중랑), 이*희(동해), 정*란(충주), 윤*자(춘천), 전*교(삼척), 정*순(고양), 안*영(삼척), 황**희(홍천), 장*선(은평)

강원이특별이 볼펜세트(10명)

김*규(구로), 조*혜(홍천), 이*렬(하남), 김*동(성동), 김*원(제천), 김*권(익산), 박*민(양구), 장*익(동해), 신*철(춘천), 김*석(고양)

2025-2026

강원 방문의 해

VISIT GANGWON YEAR



강원특별자치도 GANGWON STATE

GWTO 강원관광재단
Gangwon Tourism Organization



into Jeongseon



정선
이달의 관광지

2025-2026

강원 방문의 해
VISIT GANGWON

